

삼성 KPMG

Industry Financial Analysis

October 2017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분석기간: 2012~2016년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최연경

연구원

Tel: +82 2 2112 7769

yeonkyungchoi@kr.kpmg.com

김기범

연구원

Tel: +82 2 2112 7430

kkim28@kr.kpmg.com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4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4
연구방법론	5
재무정보의 생성 과정 및 활용 목적에 따른 재무비율 도출	5
분석 단계별 활용 지표	6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9
전자 산업 전체 재무분석	10
전자 산업의 총자산과 자기자본	10
전자 산업의 부채와 유동성	11
전자 산업의 매출	12
전자 산업의 원가 및 재고관리	13
전자 산업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14
전자 산업의 영업이익	15
전자 산업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6
전자 산업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17
전자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수익	18
전자 산업의 영업외비용	19
전자 산업의 매출액순이익과 ROI	20
전자 산업의 ROE와 유보액	21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재무분석	22
재무구조로 본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미래 성장잠재력	22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매출과 원가관리	24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과 판매비 및 관리비	27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30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32
결론 및 시사점	34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37
Appendix 2 – 전자 산업 분석 대상 기업	45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산업의 재무분석은 해당 산업에 속한 개별기업은 물론 정책입안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재무적 안정성,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른 단계별 수익성 및 비용 효율성, 신규투자여력의 변동 등을 분석한다. 특히 전자 산업 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전자 산업의 소분류에 속한 업종별 비교 분석도 수행하여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본 자료를 활용할 때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Executive Summary

■ 산업 재무분석의 활용

- 개별기업: 동종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비용 항목들의 재무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정책입안자: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가능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
- 투자자: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 분석대상: 2017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7,322개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1,144개 기업
-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구조 관계 비율과 수익·비용 발생의 손익계산서 도출 과정에 상응하는 22개의 평균 재무비율 도출
- 전자 산업 내 전체 기업의 평균과 KOSPI(38개) 및 KOSDAQ(212개) 상장사의 평균을 비교하여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분석
- 평균의 함정으로 인한 왜곡된 분석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위 10%(상위 5%, 하위 5%)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Trimean을 사용

■ 전자 산업 분석결과

-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장단기 성장잠재력은 위축되고 있음. 총자산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해 왔으나, 증가폭이 둔화. 다만 2016년 자기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점으로 볼 때 재무적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최근 증가했으나 총매출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하락 추세를 보임
- 최근 5년간 전자 산업에서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가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보다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전자 업계는 최근 5년 간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을 증가시켜 신규투자여력을 확보 중. 또한 전자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산업의 재무분석은 개별기업과, 정책입안자 및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개별기업은 자사가 속한 동종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 비용 항목들의 재무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개별기업, 정책입안자, 투자자의 합리적인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정보제공 ”

또한 자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해당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신규투자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영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의 재무적 성과가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기인한 것인지, 자사의 개별적 경영 성과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사업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경우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가늠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산업 평균 재무비율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의 2012년~2016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특히 전자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 산업의 소분류에 속한 업종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 2012년 ~ 2016년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의 평균 재무비율 변동을 분석 ”

분석자료로 NICE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2017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7,322개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1,144개의 기업을 추출했다. 해당 관측치의 평균값을 통해 먼저 전자 관련 전체 기업들의 평균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전자 산업에서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이 속하는 소분류 업종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소분류 업종은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등 여섯 가지 업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의 경우 외부감사대상 기업수가 'SKC' 1개로 집계되어 평균을 분석하는 본 보고서에 적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한 외부감사 대상 1,144개 기업의 재무정보를 추출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소분류					
구분	외감대상기업수				분석대상 포함유무
	KOSPI	KOSDAQ	비상장사 · KONEX	전체	
반도체 제조업	9개	45개	101개	155개	포함
전자부품 제조업	22개	78개	506개	606개	포함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개	9개	45개	55개	포함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5개	68개	187개	260개	포함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개	12개	55개	68개	포함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개	0개	0개	1개	제외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II. 연구 방법론

재무정보의 생성 과정 및 활용 목적에 따른 재무비율 도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정보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특정한 두 항목 간의 비율로 표현되는 재무비율은 다수이지만, 경제적인 의미가 있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재무비율은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상 당해년도 최종 수익 도출과정의 논리 흐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산업 평균 재무비율을 도출한다. 손익계산서의 논리흐름으로 재무비율을 분석하면 수익과 비용발생의 각 단계별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적 트렌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해 볼 수 있다.

“ 회계적 논리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단계별 흐름에 상응하는 재무비율 선별 ”

또한 산업의 재무 안정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기업의 목표는 이익극대화를 통한 총자산의 증가이며, 이는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영속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전제했을 때, 총자산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보다 자본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전술한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른 재무비율 분석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손익계산서상 최종 잉여금은 자본 증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2년~2016년 5년간의 전자 산업 전체 기업의 재무적 추이와 함께 KOSPI 기업, KOSDAQ 기업의 특징적 재무정보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 산업 전체 기업의 평균과 KOSPI(38개) 및 KOSDAQ(212개) 상장사의 재무비율을 분석했다.

“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구조 관계 비율을 통해 산업의 성장잠재력 분석 ”

분석단계별 활용 지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활용한다. 총자산증가율과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의 변동을 통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유동비율을 통해 단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재무구조 관련 비율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총자산증가율	$\frac{(\text{당기총자산} - \text{전기총자산})}{\text{전기총자산}}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text{자기자본} / \text{총자산}) \times 100$
부채비율	$(\text{부채총액} / \text{자기자본}) \times 100$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한편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의 4단계 과정을 거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이며,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이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합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한 최종 이익이다. 중단사업손익의 경우 특별손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먼저 1단계(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총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이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산업의 단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 파악한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를 파악하여 향후 매출 증가의 확대와 둔화를 가늠해 본다. 또한 매출총이익률과 총매출원가율을 통해 원가 대비 수익성을 파악한다. 아울러 매출과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회전율을 파악하여 산업 내 자금회전의 활동성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매출 총 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과정의 4단계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 수익·비용발생의 재무적 트렌드 파악 ”

2단계(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연구개발비이다. 영업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분석한다.

3단계(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이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파악하며,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변동성을 분석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세부항목은 매우 다양하고, 기업마다 사용하는 계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계(법인세차감전이익-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ROI),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률 변동을 통해 산업 내 경영활동의 최종성과를 파악하고, 투자된 자본 대비 최종 수익성 변동을 함께 분석해 본다. 또한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을 통해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투자여력의 변동을 살펴 보도록 한다.



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라 18개의 재무비율을 도출... 4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

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른 단계별 활용 재무비율		
단계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1단계]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text{매출총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증가율	$\frac{(\text{당기총매출액} - \text{전기총매출액})}{\text{전기총매출액}} \times 100$
	총매출원가율	$(\text{총매출원가} / \text{총매출액}) \times 100$
	재고자산회전율	$(\text{매출액} / \text{평균재고자산})$
	매출채권회전율	$(\text{매출액} / \text{매출채권})$
	매입채무회전율	$(\text{총매출원가} / \text{매입채무})$
[2단계]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판매비	$(\text{판매비}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text{일반관리비}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인건비	$(\text{인건비}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text{연구개발비} / \text{매출액}) \times 100$
[3단계]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률	$(\text{법인세차감전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text{영업외수익}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text{영업외비용} / \text{매출액}) \times 100$
[4단계] 법인세차감전이익 -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순이익률	$(\text{당기순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총자본순이익률(ROI)	$(\text{당기순이익} / \text{총자산}) \times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text{당기순이익} / \text{자기자본}) \times 100$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text{유보액} / \text{납입자본금})$

Note: 인건비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하의 인건비를 의미함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 현실적인 의미
 도출을 위해 표본의 상하위
 10% 이상치 (Outlier) 를
 제거한 Trimmean 사용 ”

산업 재무비율의 평균값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해야 한다.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치를 포함하여 평균을 도출하면, 현실적인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Trimmean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Trimmean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상위와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거한 후 도출한 평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0% Trimmean은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전체 자료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10%의 Trimmean은 상위 5%와 하위 5% 값을 제거한 후 구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전자 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의 총자산증가율 평균은 10.58%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하위 10%를 제거한 평균인 5.76%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상하위 10%가 산업의 현실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평균은 기본적으로 표본이 많을 수록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0%의 상하위 자료를 제거한 Trimmean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2016년 전자 산업 전체의 총자산증가율(Trimmean)		
범위(%)	관측치 수	Trimmean
0	1,086	10.58
10	997	5.76
20	869	4.85
30	760	4.46
40	652	4.26
50	543	4.03



III. 전자 산업 전체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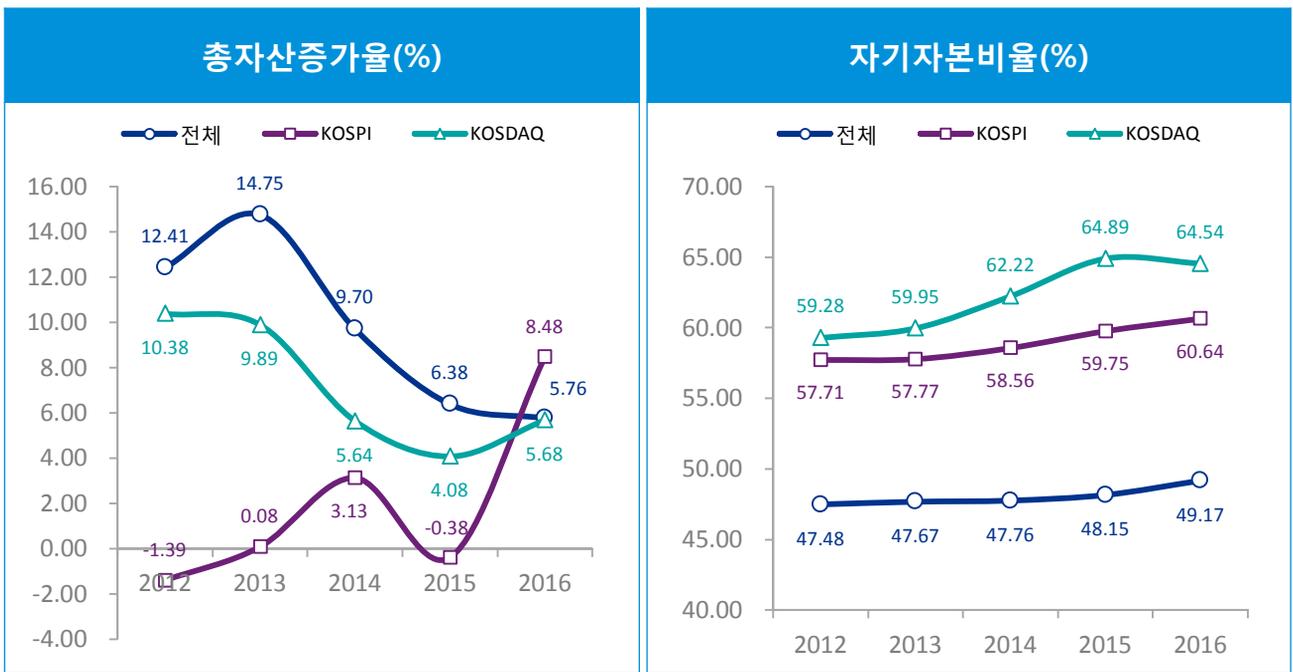
“ 최근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의 총자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KOSPI, KOSDAQ 기업별로 상이한 추이 ”

전자 산업의 총자산과 자기자본

전자 기업들의 총자산은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추이는 전체, KOSPI, KOSDAQ 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 총자산증가율은 2013년 14.75%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점차 하락하여 2016년도에는 5.76%의 증가율을 보였다. KOSPI 기업의 경우 2012년과 2015년에 총자산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총자산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6년도에는 급격히 반등하여 8.48%의 총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다. KOSPI를 제외한 전체 전자 기업과 KOSDAQ 기업의 2016년 평균 총자산증가율은 5% 대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산에서 자본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KOSPI, KOSDAQ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KOSDAQ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64.54%로 가장 높았으며, KOSPI 평균이 60.64%, 전체 평균은 49.17%로 뒤를 이었다.

분석기간 동안 KOSDAQ 기업 자기자본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2.15%로, 1.25%를 기록한 KOSPI 기업과 0.88%를 기록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KOSDAQ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015년 64.89%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6년도에는 0.35%p 소폭 하락하였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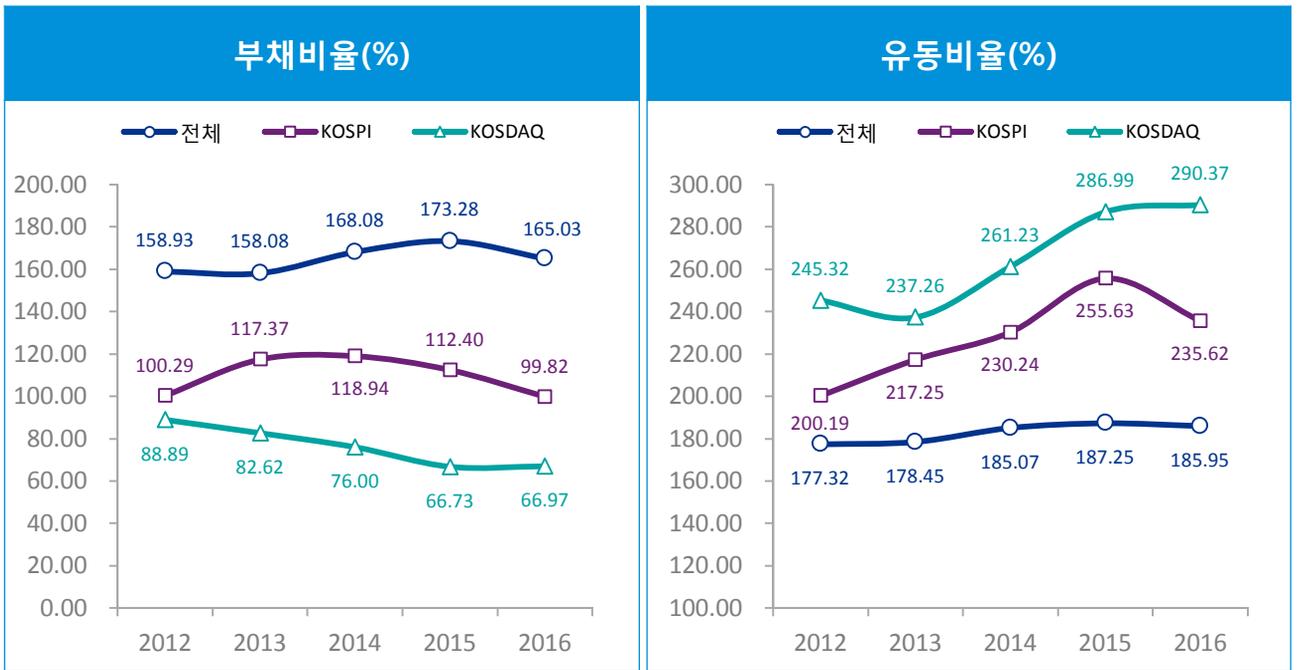
전자 산업의 부채와 유동성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규모 전자 기업까지 포괄하고 있는 전체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KOSPI와 KOSDAQ이 뒤를 이었다. 2016년 기준 전체 평균 부채비율은 165.03%를 기록하였고, KOSPI는 99.82%, KOSDAQ은 66.97%로 상장 여부에 따라 부채비율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 KOSDAQ 기업은 재무적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전자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채 보유 ”

이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부채비율 추이는 전체, KOSPI, KOSDAQ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OSDAQ 기업의 부채비율의 경우 2012년 88.89%에서 점차 낮아져 2016년도 66.97%를 기록한 반면, KOSPI 기업의 부채비율은 분석기간 중 다소 상승했다가 다시 2012년도 수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띄고 있다. KOSDAQ 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자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KOSDAQ이 가장 높았으며, KOSPI와 전체 평균이 뒤를 이었다. KOSDAQ 기업의 경우, 2012년 245.32%에서 2016년 290.37%로 유동비율이 상승하였고 KOSPI 기업도 같은 기간 200.19%에서 235.62%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단, 2016년 KOSPI 기업들의 유동비율은 전년대비 20.01%p 하락했다. 또한 전체 전자 기업의 평균 유동성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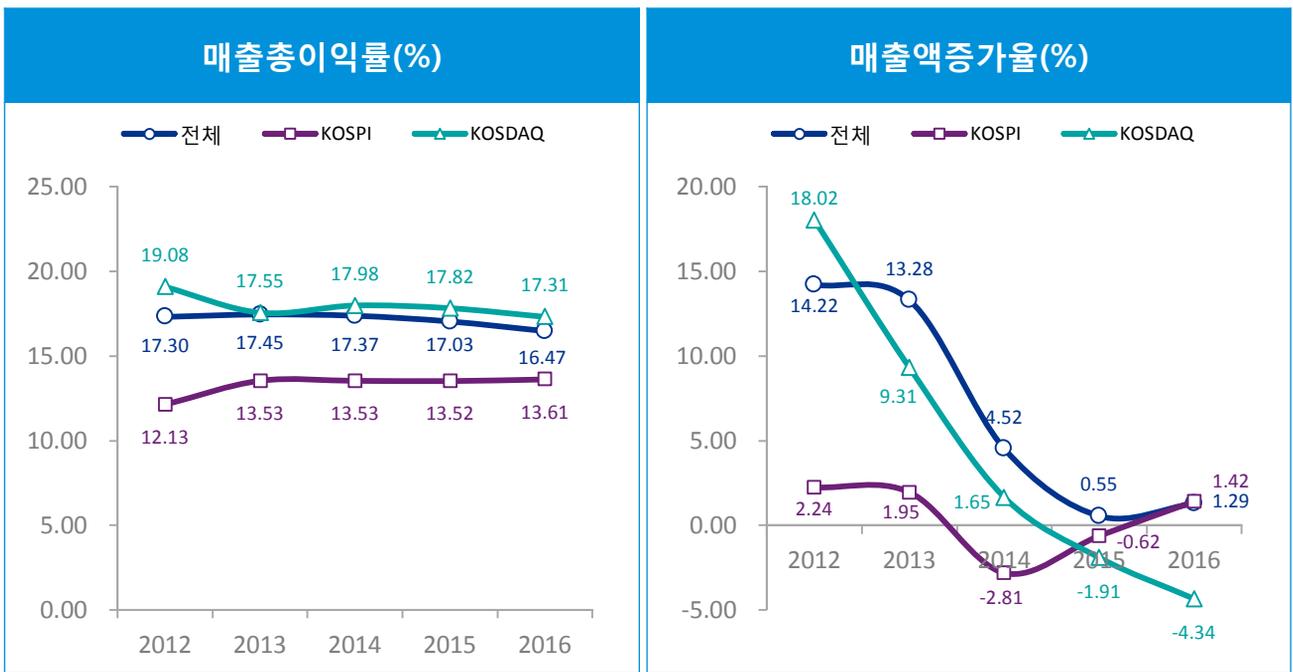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전자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의 모멘텀이 위축된 것으로 보임 ”

전자 산업의 매출

전자 산업의 매출총이익률은 2016년 기준 KOSDAQ이 17.31%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이 16.47%로 그 뒤를 이었으며 KOSPI가 13.61%로 가장 낮은 이익률을 기록했다. 분석기간 동안 전체 평균과 KOSDAQ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 반면, KOSPI의 경우 미세하게 상승하였다. 2012년 KOSDAQ 기업과 KOSPI 기업 간 매출총이익률 차이가 6.95%p 였으나, 2016년에는 그 차이가 3.70%로 줄어들면서 매출총이익률이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12년 14.22%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2015년도에는 0.55%, 2016년도에는 1.29% 수준을 맴돌고 있다. KOSDAQ 기업의 경우, 2012년 18.02%로 가장 높은 매출액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하여 2015년부터는 매출액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역성장을 보였다.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4.34% 감소하며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OSPI 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매출액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에 매출액증가율이 -2.81%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16년도에는 1.42%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전자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자 산업에서 매출 성장 모멘텀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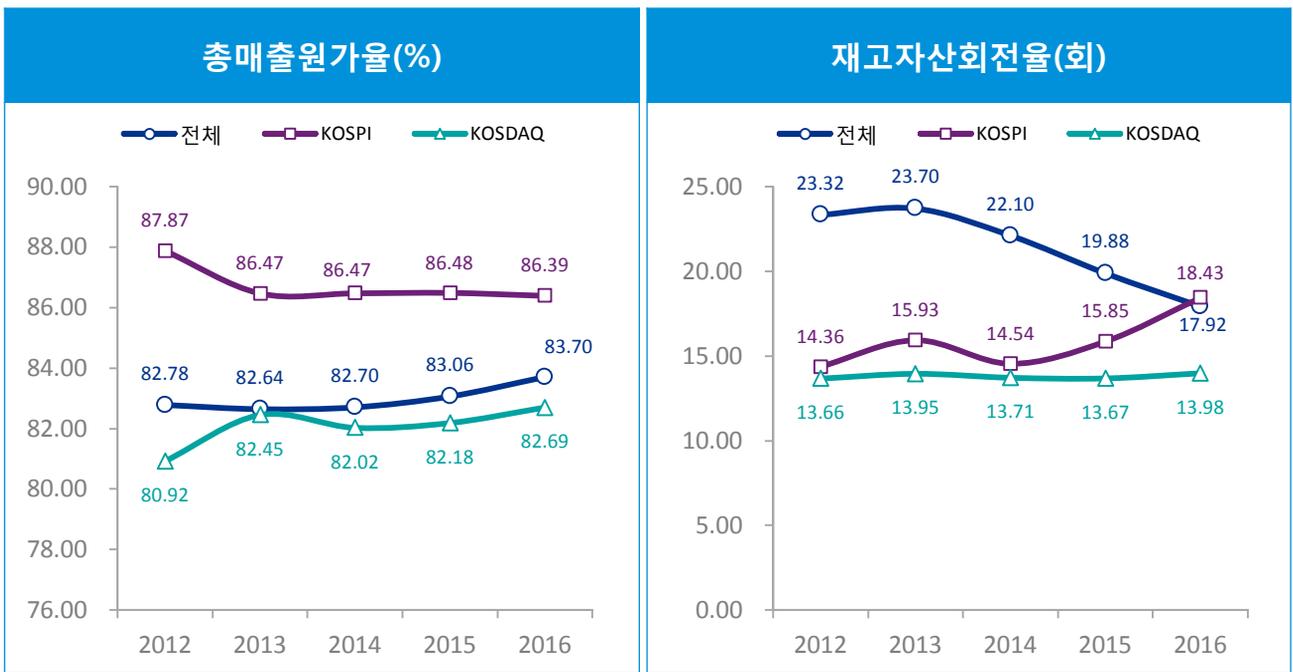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KOSDAQ 기업의 총매출원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 전자 산업 전체 평균으로는 원가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

전자 산업의 원가 및 재고관리

전자 산업의 전체 평균 총매출원가율은 최근 5년간 상승하는 추세로, 상품의 구입비용 또는 제품의 제조비용이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KOSDAQ 기업의 총매출원가율은 2012년 80.92%에서 2016년 82.69%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전체 평균으로는 원가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KOSPI 기업의 총매출원가율은 2013년부터 86%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KOSPI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력사를 관리하는 등 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전체 평균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가 구매 및 생산 대비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매출 둔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은 2012년에는 평균 23.32회의 재고자산회전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6년도에는 17.92회로 나타났다. 반면 KOSPI 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지난 5년간 상승하여 2016년에는 18.43회를 기록하였다. KOSDAQ 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큰 변화 없이 지난 5년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전체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KOSPI에도 KOSDAQ에도 상장되어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자 제조 기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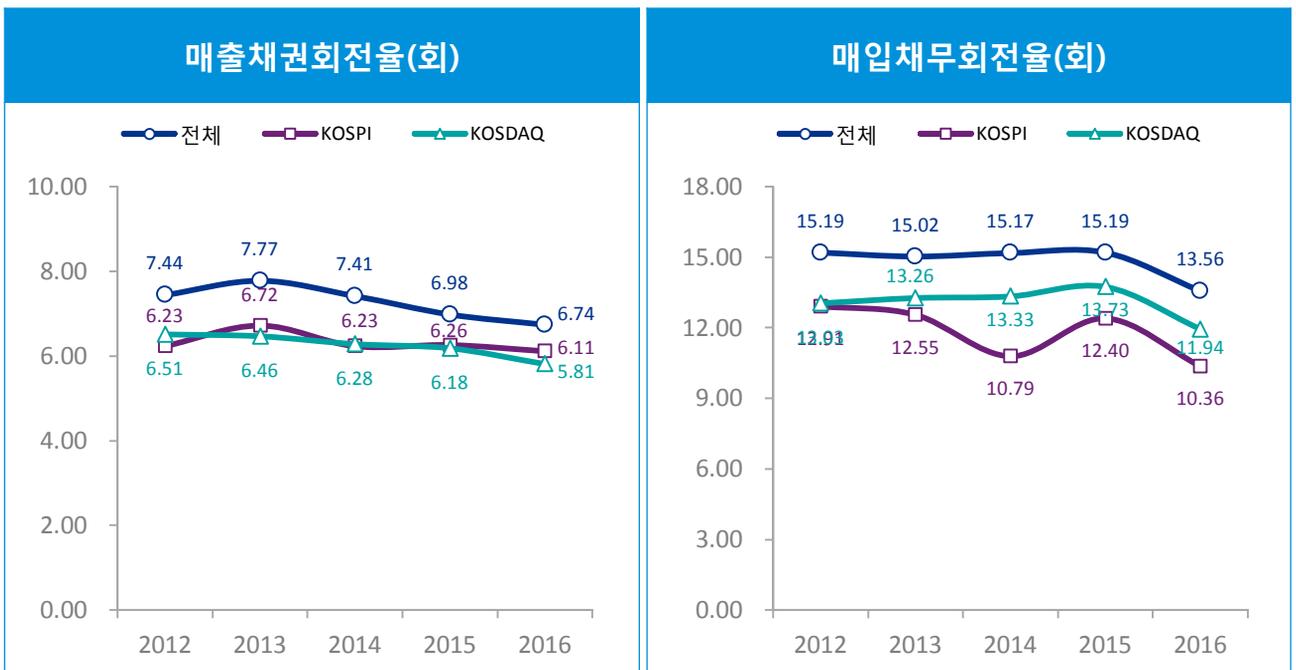
전자 산업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매출채권회전율은 기업의 자금회전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매출채권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현금유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해당 지표가 하락하면 대손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현금유입이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입채무의 변제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은 동일 업종의 평균비율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 전자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자금회전 활동성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 ”

전자 산업의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은 전체, KOSPI, KOSDAQ에서 공통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의 회수기간과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자금회전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6년도 전체 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6.74회를 기록했으며 KOSPI 기업 평균은 6.11회, KOSDAQ 기업 평균은 5.81회를 기록했다. 반면 2016년 매입채무회전율은 전체 평균이 13.56회, KOSPI가 10.36회, KOSDAQ이 11.94회로 KOSDAQ의 매입채무회전율이 KOSPI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매입채무회전율이 매출채권회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전자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KOSDAQ 기업의 영업이익률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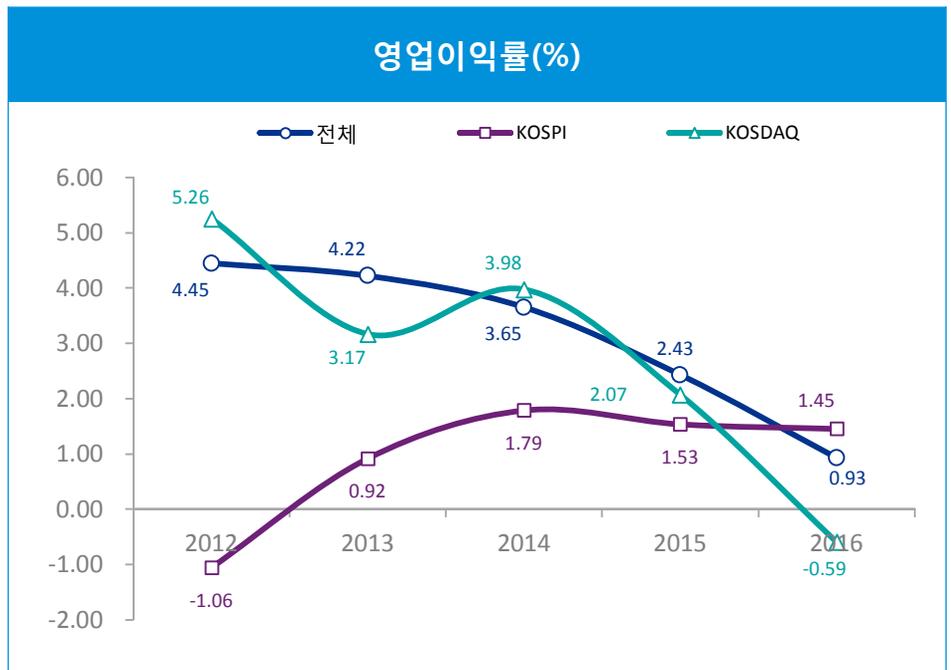
전자 산업의 영업이익

전자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전체 평균 4.45%를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2016년에 0.93%로 하락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OSDAQ 기업의 경우 전체 기업의 흐름과 비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영업이익률 변화폭이 세 분류 중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KOSDAQ 기업은 2012년에는 5.2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0.5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여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매출총이익률은 미세하게 변화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현저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가운데, 이는 인건비, 판관비, 연구개발비 등 여러 비용 요소가 영업이익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자 산업 전체 및 KOSDAQ 기업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추세와는 달리, 전자 산업에 속한 KOSPI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 -1.06%에서 2016년 1.45%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대체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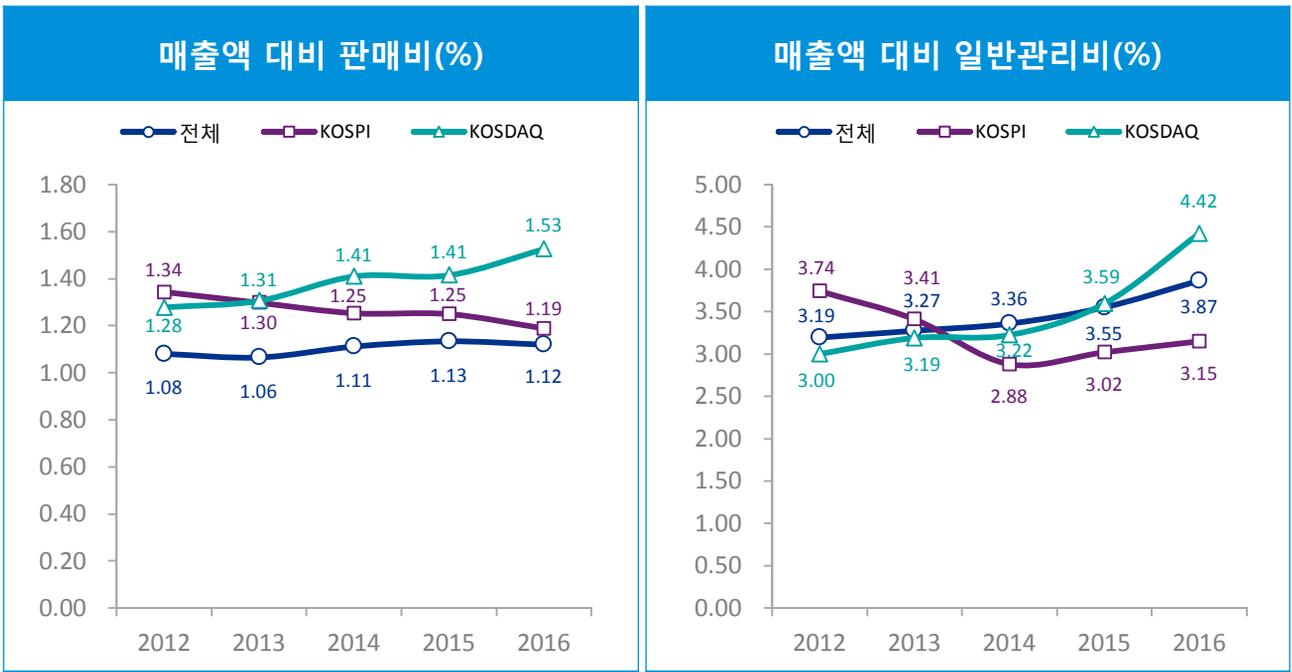
“ 전자 산업의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율은 1%대 ...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는 상승 추세 ”

전자 산업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자 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원인 중 하나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평균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B2B 사업과 B2C 사업이 공존하는 전자 산업의 특성상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중은 1% 수준으로 B2C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KOSPI 기업과 KOSDAQ 기업을 구분하여 판매비 비중을 살펴볼 때, KOSPI 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는 줄어든 반면, KOSDAQ 기업의 판매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전자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는 판매비보다는 높은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산업의 전체 평균 일반관리비는 2012년 3.19%에서 2016년 3.87%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KOSDAQ 기업의 경우 2012년 3.00%에서 2016년 4.42%로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OSPI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는 감소하여 2012년도 3.74%에서 2016년도에는 3.15%를 보였다.

임차료,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경우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한 편인데, KOSDAQ 기업의 매출액이 하락하여 매출액 대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상승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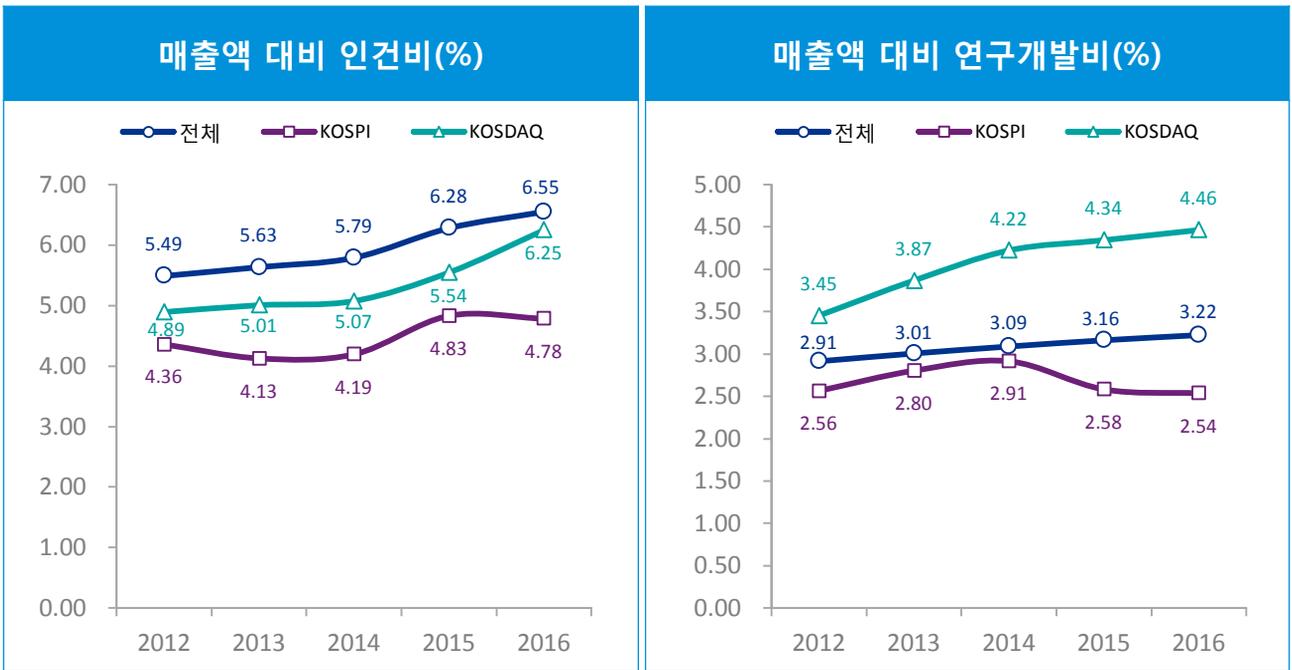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전자 산업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전자 산업에서 평균 인건비는 최근 5년간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KOSPI, KOSDAQ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KOSPI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4.78%로 가장 낮았으며, KOSDAQ 기업의 경우 6.25%, 전체 평균은 6.55%를 기록하였다. KOSPI 기업은 2015년 이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KOSDAQ 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 ”

전자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2012년 2.91%에서 2016년 3.22%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전자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KOSDAQ 기업은 매출액 대비 4.46%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보다 1.01%p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KOSPI 기업은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 및 KOSDAQ 기업 대비 낮았으며 2014년 이후 하락하여 2016년 2.54%를 보이고 있다. 전폐 평균 연구개발비의 지속 증가는 전자 기업이 단기적 관점의 수익성 개선보다 장기적 관점의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므로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지속성 있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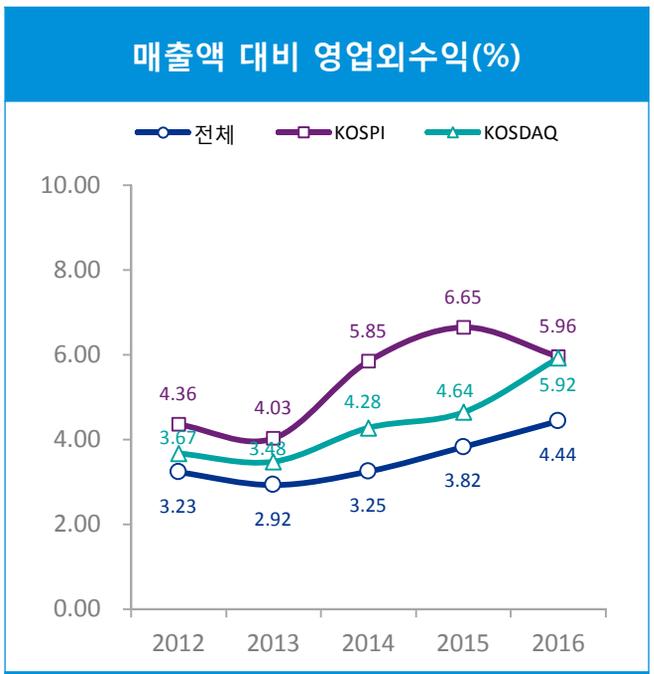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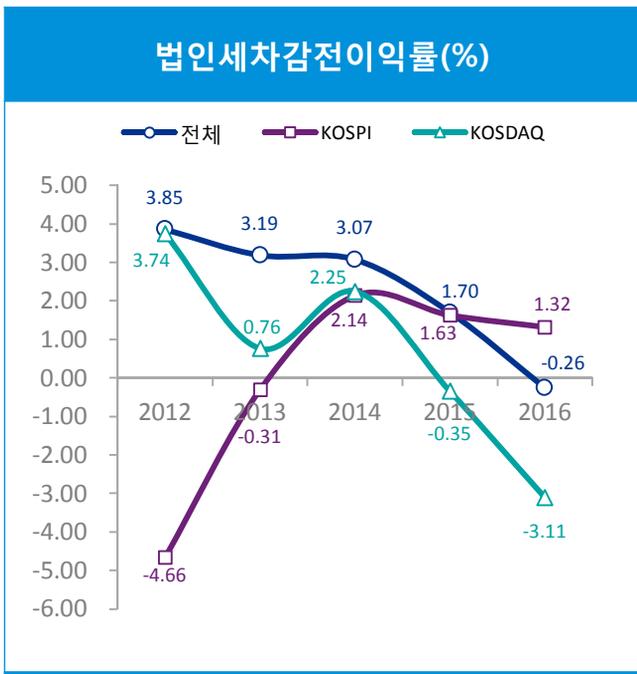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추세
... 전자 산업의 영업 활동의
지속성은 전반적으로 악화
”

전자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수익

전자 산업에서 5개년의 법인세차감전이익률 추이는 영업이익률의 추이와 유사했다. 그러나 매출 대비 영업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외수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 더 낮게 형성되었다. 전자 산업의 평균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최근 5년간 하락하는 모습이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1.96%p 하락한 -0.26%를 기록했다. 2016년 KOSPI 기업의 경우 1.32%로, KOSDAQ 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악화된 -3.11%로 확인됐다.

영업이익 도출 후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수익은 2013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며 KOSPI 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준 KOSPI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은 5.96%, KOSDAQ 기업은 5.92%로 나타나 전체 평균(4.4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전자 산업의 영업외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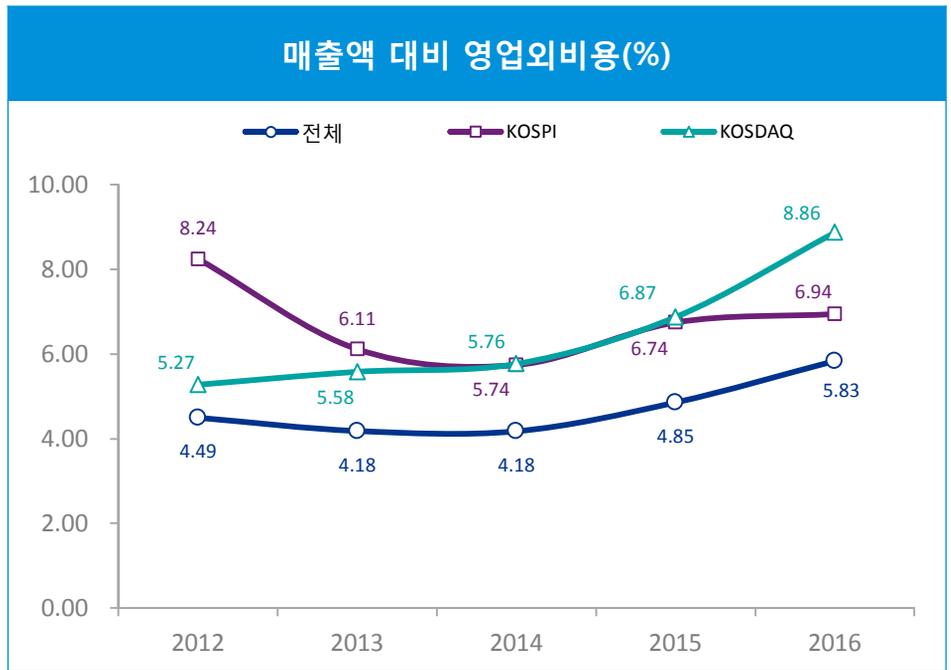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업외수익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자 산업 전체, KOSPI, KOSDAQ 기업 모두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KOSDAQ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5년간 지속 상승... 비용관리 필요성 대두 ”

전자 산업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2012년 4.49%, 2013년 4.18%, 2014년 4.18%를 보인데 이어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5년 4.85%, 2016년 5.83%를 나타냈다.

KOSPI 기업은 2012년 8.24%의 높은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을 보였지만, 이후 2013년 6.11%, 2014년 5.74%로 낮아졌다. 하지만 KOSPI 기업의 영업외비용은 2015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6.74%, 2016년 6.94%를 나타냈다.

특히 KOSDAQ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이 지속 상승하면서 2012년 5.27%, 2013년 5.58%, 2014년 5.76%, 2015년 6.87%를 보였다. 특히 2016년 KOSDAQ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8.86%에 이르면서 비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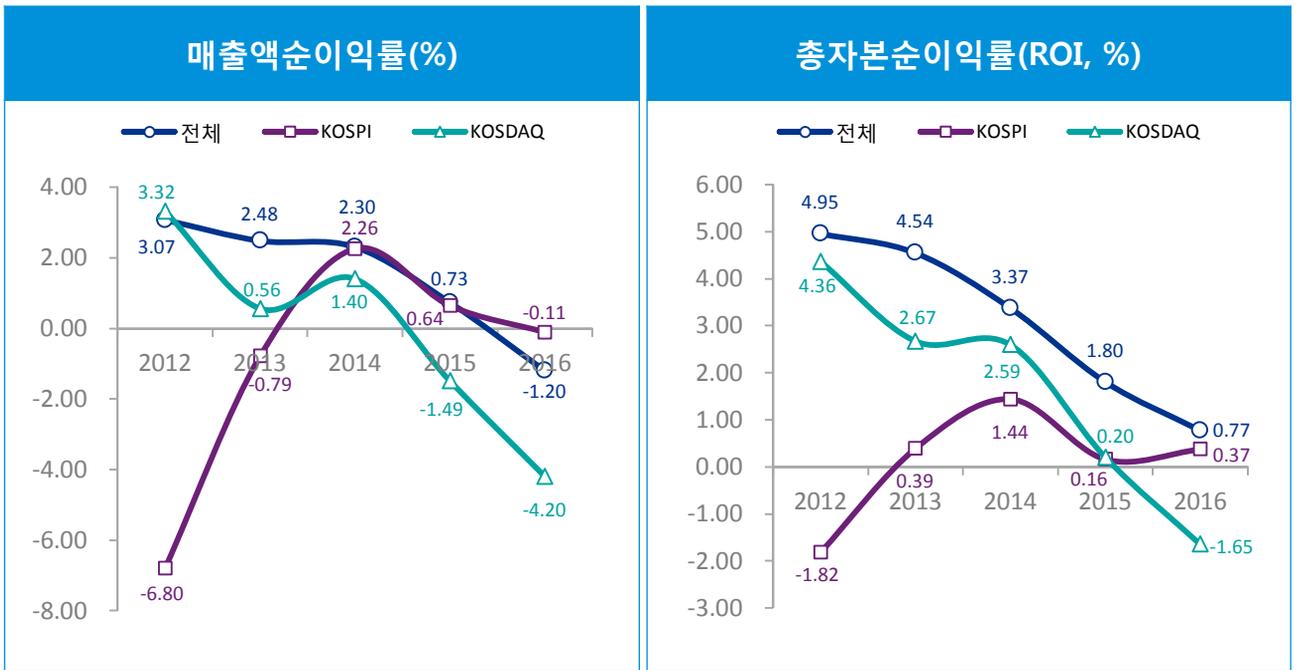
“ 전자 산업의 수익성과 투자 자본의 효율성은 지속 하락 ”

전자 산업의 매출액순이익과 ROI

전자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당해년도 기업 활동의 총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보통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양호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전자 산업 전체의 매출액순이익률은 2012년 3.07%에서 지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며 2016년 -1.20%를 기록했다. KOSPI 기업의 경우 2012년(-6.80%)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4년을 분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16년에는 -0.11%를 기록해 총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 산업에서 기업에 투자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총자본순이익률(ROI)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 산업의 전체 평균의 경우 2012년 4.95%에서 2016년 0.77%를 기록했다. KOSDAQ 기업의 ROI 또한 지난 5년간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단, KOSPI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2016년 0.37%로 나타나 2015년 0.16%보다 ROI가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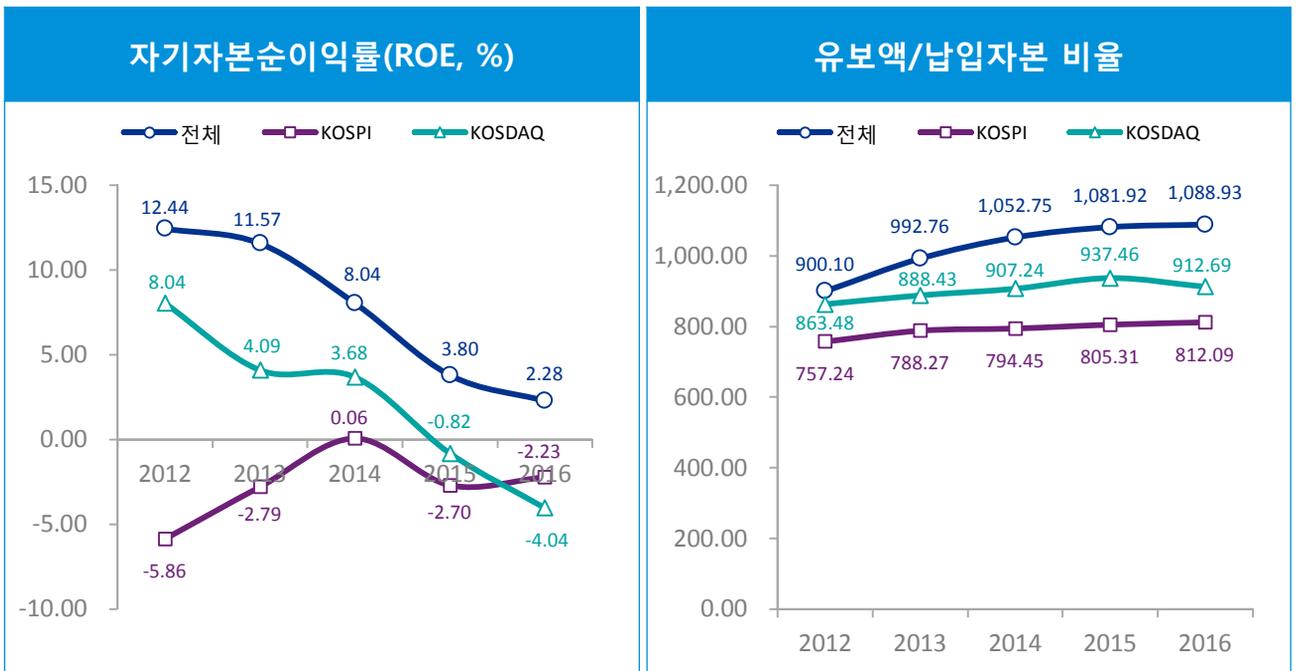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자기자본순이익률
지속적으로 하락 ... 다만
기업들의 신규 투자 여력은
증가 ”

전자 산업의 ROE와 유보액

전자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을 측정하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평균의 경우 2012년 12.44%에서 2016년 2.28%로 하락했으며, KOSDAQ 기업 또한 2012년 8.04%에서 2016년 -4.04%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SPI 기업의 ROE는 2014년(0.06%)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전자 산업의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전체 평균의 경우 2016년 1,088.93%, KOSDAQ 기업은 912.69%, KOSPI 기업은 812.09%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규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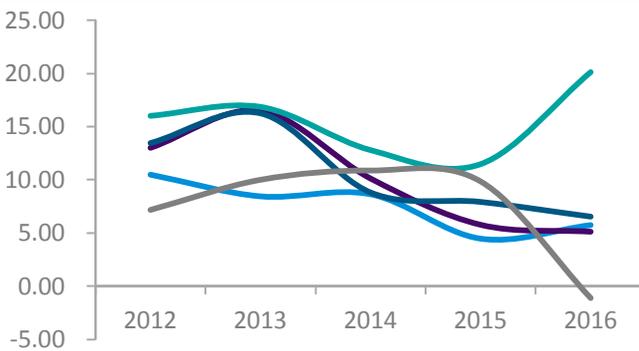
IV.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재무분석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업종을 제외하고는 총자산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 ”

재무구조로 본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미래 성장잠재력

2016년 전자 산업의 세부 업종별 총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컴퓨터 및 주변장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영상 및 음향기기를 제외한 세 업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및 음향기기 업종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2016년 처음으로 총자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자산의 규모가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다. 반면 전자 산업의 업종별 자기자본비율은 큰 변화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전 업종에서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미세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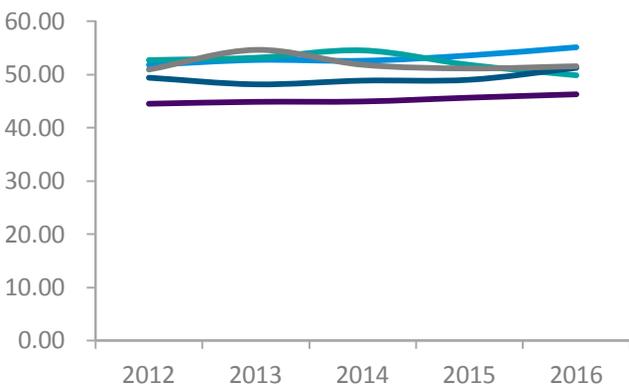
총자산증가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10.48	8.44	8.64	4.47	5.74
전자부품 제조업	13.01	16.49	10.12	5.77	5.1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6.01	16.85	12.79	11.47	20.1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3.45	16.25	8.81	7.92	6.54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7.17	10.00	10.87	9.85	-1.12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자기자본비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51.85	52.76	52.62	53.62	55.15
전자부품 제조업	44.53	44.89	44.96	45.67	46.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52.74	53.18	54.56	51.83	49.88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49.42	48.18	48.88	49.04	51.2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50.96	54.66	51.86	51.17	51.58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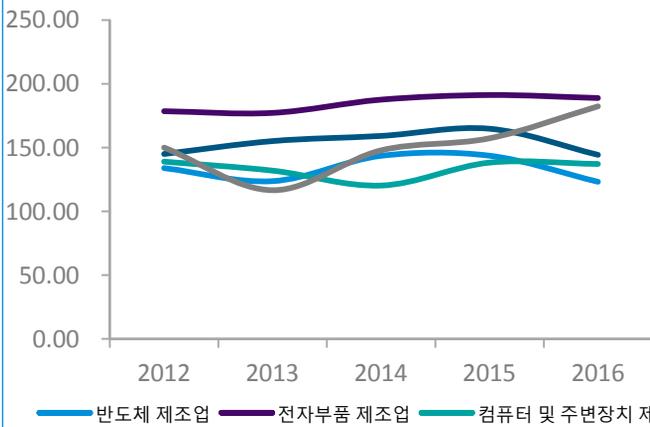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 반도체 제조업의 유동 비율은 연평균 7% 증가하여 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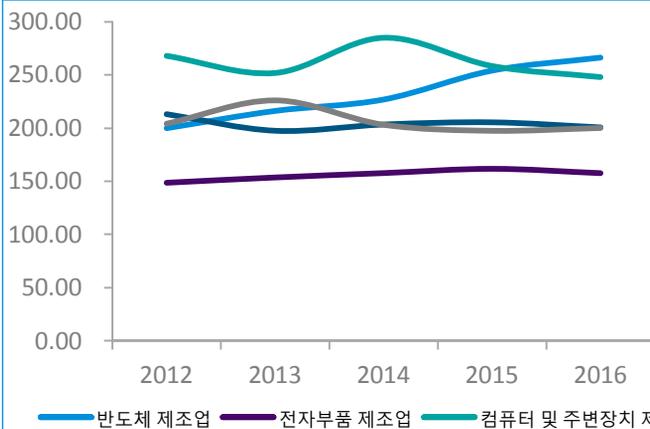
업종별 부채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영상 및 음향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 산업 업종에서 다소 변동폭은 존재하나 2016년에는 2012년도의 부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전자부품 제조업이 188.86%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업이 123.26%로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모든 전자 산업의 세부 업종에서 부채를 레버리징하여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단, 영상 및 음향기기의 부채비율은 2013년 116.67%에서 2016년 182.35%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동비율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살펴 볼 때,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2012년 199.91%에서 2016년 266.24%로 증가하여 반도체 업계의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133.99	123.76	143.59	143.69	123.26
전자부품 제조업	178.55	177.22	187.59	191.20	188.8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39.03	132.00	120.31	138.28	137.20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45.05	155.13	159.17	164.81	144.37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50.06	116.67	147.87	157.34	182.35

유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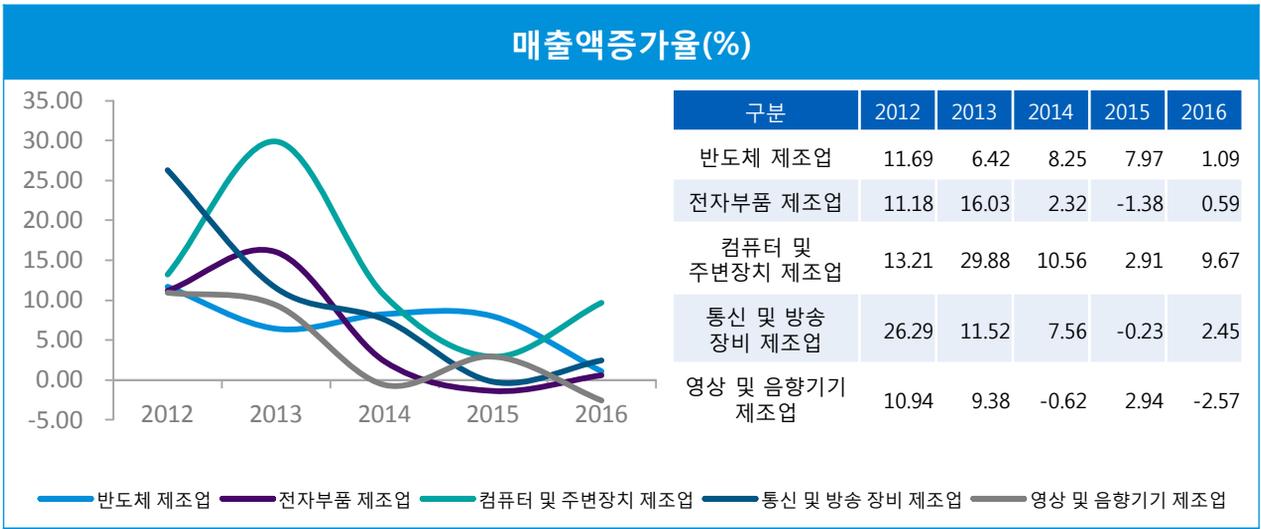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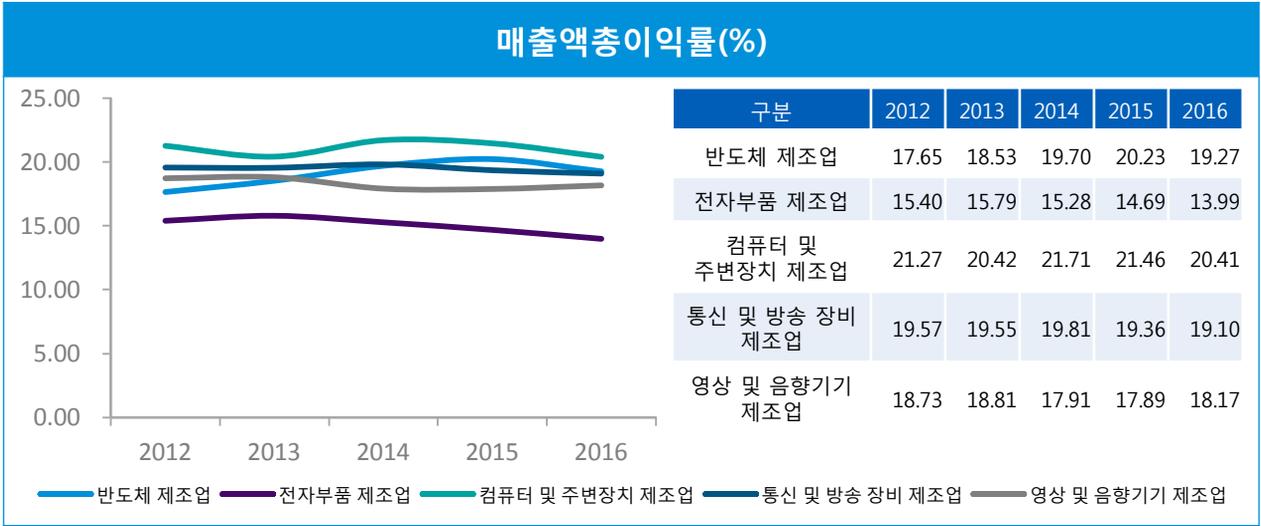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199.91	216.11	226.81	254.00	266.24
전자부품 제조업	148.61	153.58	157.69	161.72	157.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7.87	251.77	284.89	258.32	247.91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13.07	197.49	203.36	205.41	200.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364.9	257.4	232.4	276.4	265.4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모든 전자 세부
업종의 수익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둔화 ”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매출과 원가관리

전자 산업의 업종별 매출액총이익률은 큰 변동폭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제품에 대한 원가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6년 매출액총이익률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가 20.41%로 가장 높았으며 반도체 제조(19.27%)와 통신 및 방송 장비(19.10%)가 뒤를 이었다. 2016년 전자부품 제조업이 13.9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도 대비 1.41%p 하락한 수치이다. 매출액증가율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전 업종에서 한자리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2012년에는 모든 업종이 10% 이상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였지만, 2014년도부터는 전자부품과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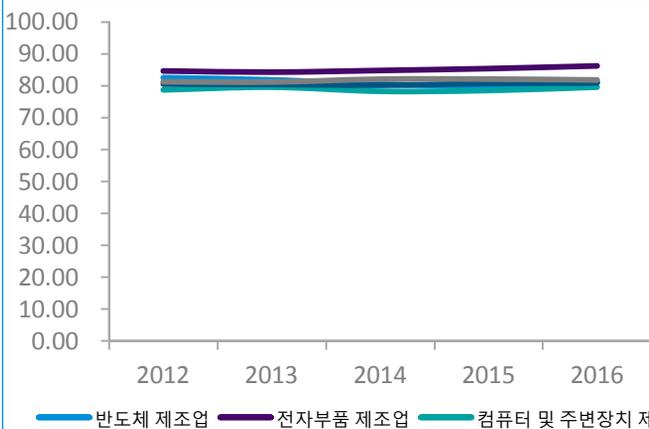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 재고자산회전율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볼 때, 향후 수익성이 우려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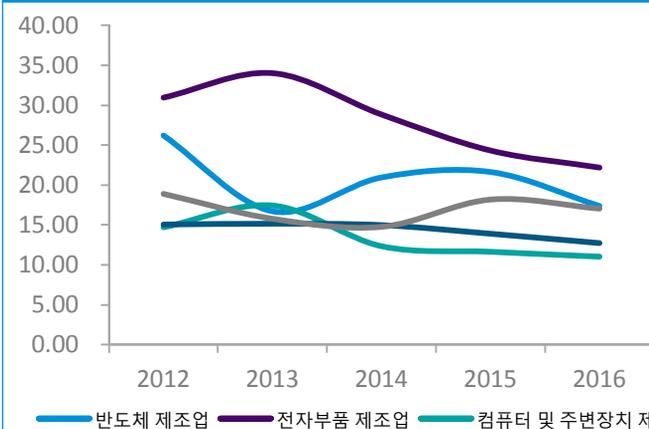
전자 제조업의 특성상 매출원가가 매출액 대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모든 업종에서 총매출원가율이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전자부품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86.23%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1.57%p 증가한 수치로 해당 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을 시사한다. 더불어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은 2016년 모든 전자 산업 세부 업종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가 2016년 기준 11.02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신 및 방송장비(12.72회), 영상 및 음향기기(17.04회)를 뒤를 이었다.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은 34.02회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 수치는 매년 감소하여 2016년 22.19회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품이 이전만큼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현금화 혹은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매출원가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82.56	81.86	80.54	79.98	81.17
전자부품 제조업	84.66	84.29	84.81	85.40	86.2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78.73	79.58	78.29	78.54	79.59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80.55	80.45	80.19	80.73	80.90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81.27	81.19	82.08	82.11	81.83

재고자산회전율(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26.21	16.71	20.96	21.64	17.37
전자부품 제조업	30.96	34.02	28.84	24.33	22.19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4.71	17.44	12.33	11.64	11.0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5.05	15.15	14.98	13.90	12.72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8.90	15.77	14.76	18.18	1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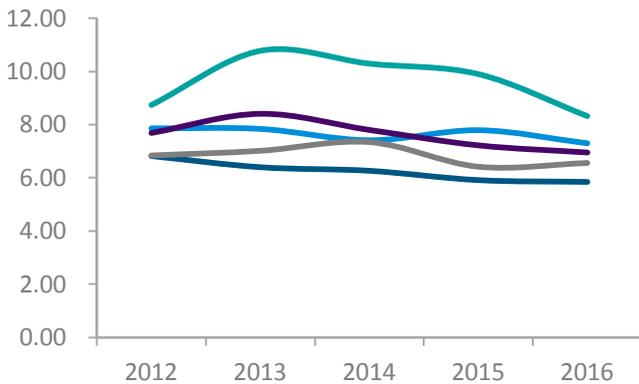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매출채권회전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 유입 속도의 둔화가 우려됨”

매출채권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현금유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나, 하락하면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현금유입이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입채무의 변제속도를 나타내며, 이 비율이 증가할 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개선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전자 산업 세부 업종에서 매출채권회전율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현금유입이 분석 기간 내 다소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6년 매입채무회전율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2012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전자 산업 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급능력이 소폭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의 경우 2015년에 매입채무회전율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다소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업종에서 매입채무보다 매출채권의 총량이 많아 매입채무회전율이 매출채권회전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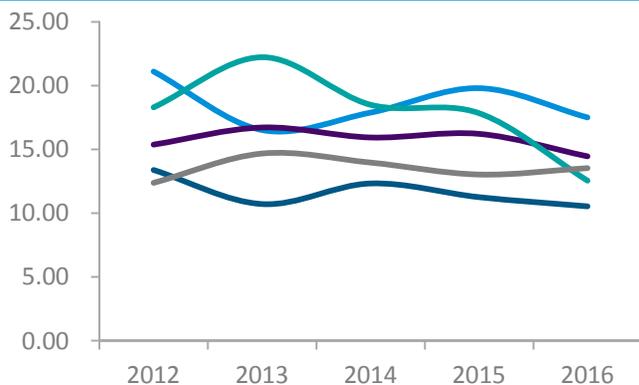
매출채권회전율(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7.86	7.84	7.41	7.79	7.30
전자부품 제조업	7.69	8.41	7.80	7.22	6.9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8.73	10.77	10.29	9.90	8.3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6.82	6.40	6.26	5.91	5.8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6.84	7.02	7.34	6.42	6.56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매입채무회전율(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21.10	16.51	17.88	19.79	17.50
전자부품 제조업	15.37	16.71	15.93	16.21	14.4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8.29	22.22	18.49	17.83	12.55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3.38	10.72	12.33	11.26	10.54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2.38	14.67	13.97	13.03	13.53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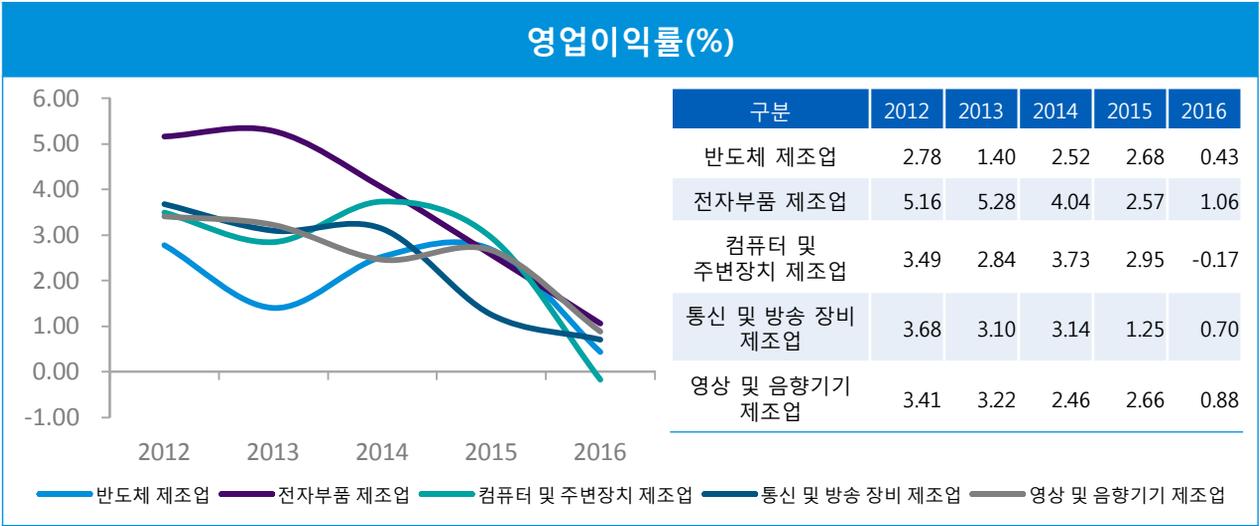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모든 전자 산업 세부 업종에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과 판매비 및 관리비

2016년 전자 산업의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컴퓨터 및 주변장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원가 상승으로 인한 총매출원가율의 상승 또는 판매관리비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즉, 원가를 포함한 비용의 증가 혹은 매출액의 감소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부분을 시사한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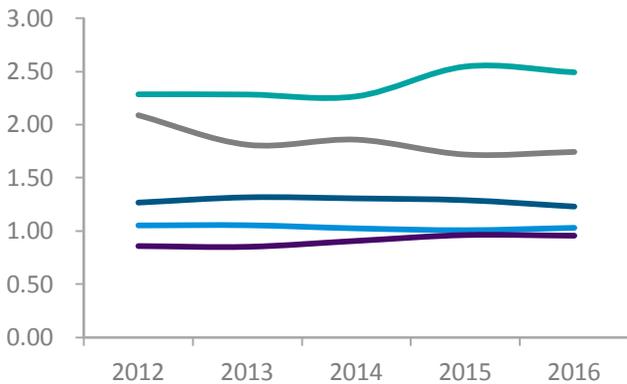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 컴퓨터 및 주변 장치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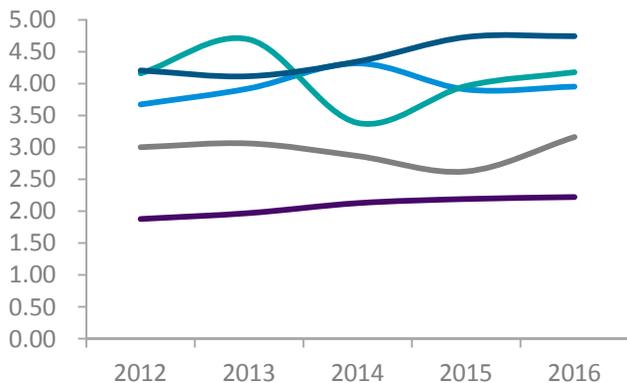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항목 중 매출액 대비 판매비를 살펴보면 컴퓨터 및 주변장치가 2016년 2.49%로 전자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과 반도체가 1% 전후로 전자 산업 내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기간 동안의 판매비 추이를 볼 때, 미세한 차이는 보였으며 B2B와 B2C 사업이 공존하는 전자 산업의 경우, 판매비의 비중이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회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2% 전후(전자부품)부터 4%대(통신 및 방송 장비)까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볼 때,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연구개발비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을 보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인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의 업종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1.05	1.05	1.02	1.01	1.03
전자부품 제조업	0.86	0.85	0.91	0.96	0.9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28	2.28	2.27	2.55	2.49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27	1.32	1.31	1.29	1.2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09	1.81	1.86	1.72	1.7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3.67	3.92	4.32	3.91	3.95
전자부품 제조업	1.88	1.97	2.13	2.19	2.2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4.16	4.69	3.38	3.96	4.18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4.20	4.11	4.34	4.73	4.74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3.00	3.06	2.86	2.62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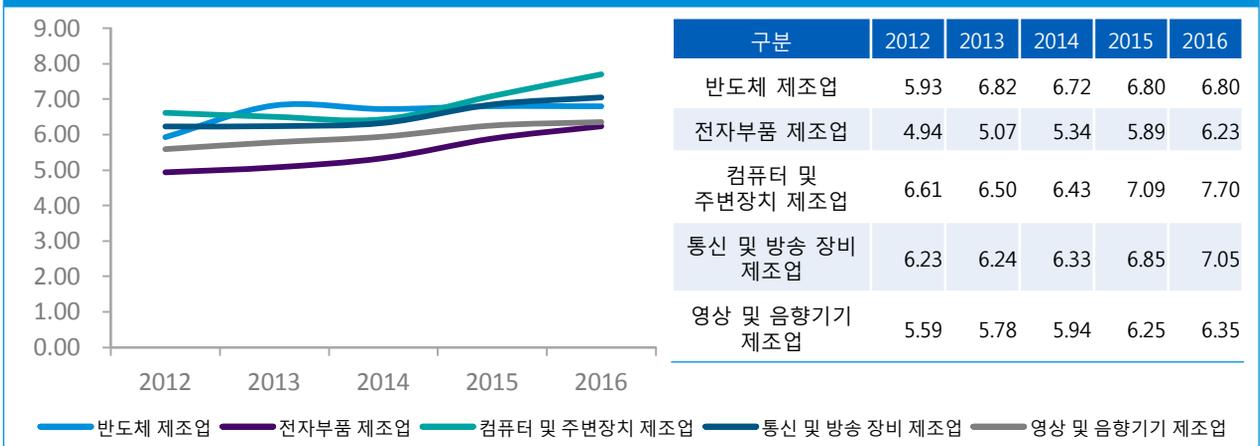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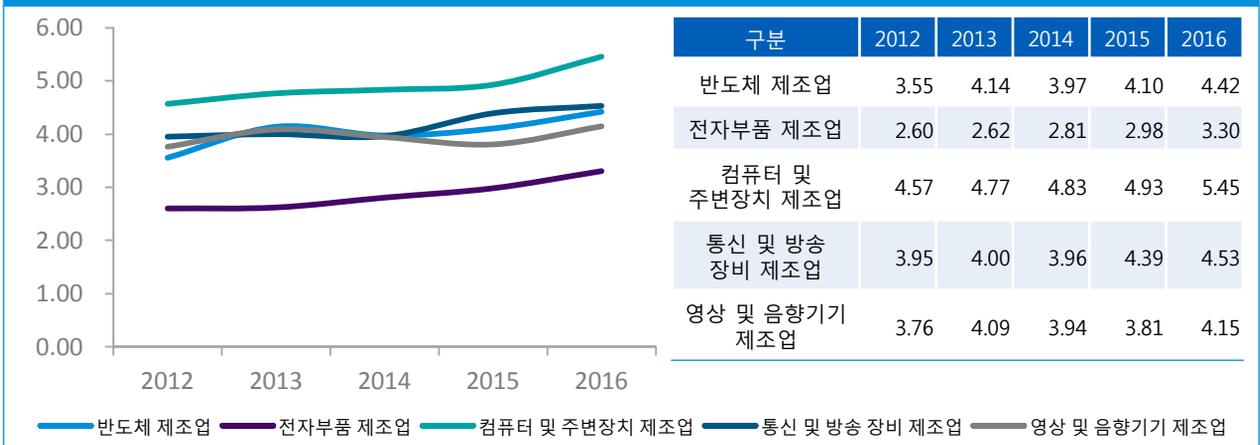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커져서 인력 및 오퍼레이션의 효율화를 통한 체질 변화가 요구됨 ”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경우 전자 산업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7.05%), 반도체 제조업(6.80%)이 뒤를 이었다. 조립공정이 주를 이루는 전자 제조 산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산업 중 하나이며, 분석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2012년 4,58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한 점 또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이유로 들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의 경우, 영상 및 음향기기를 제외하고는 다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업종별 일반관리비에 지출되는 비용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6년 컴퓨터 및 주변장치가 5.4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자부품은 3.30%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력 및 오퍼레이션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 감축을 통한 전자 산업의 체질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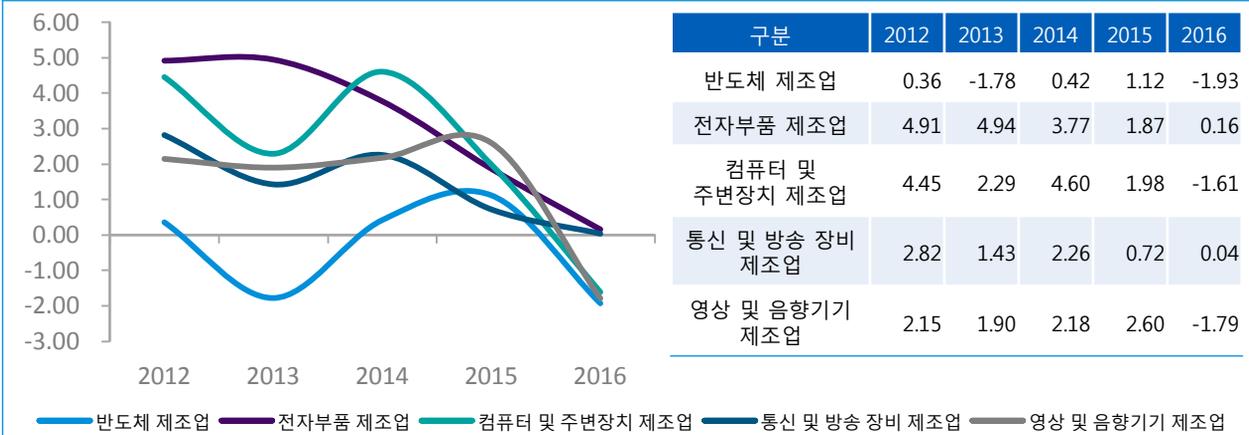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이 영업이익수익보다 높게 나타나 ...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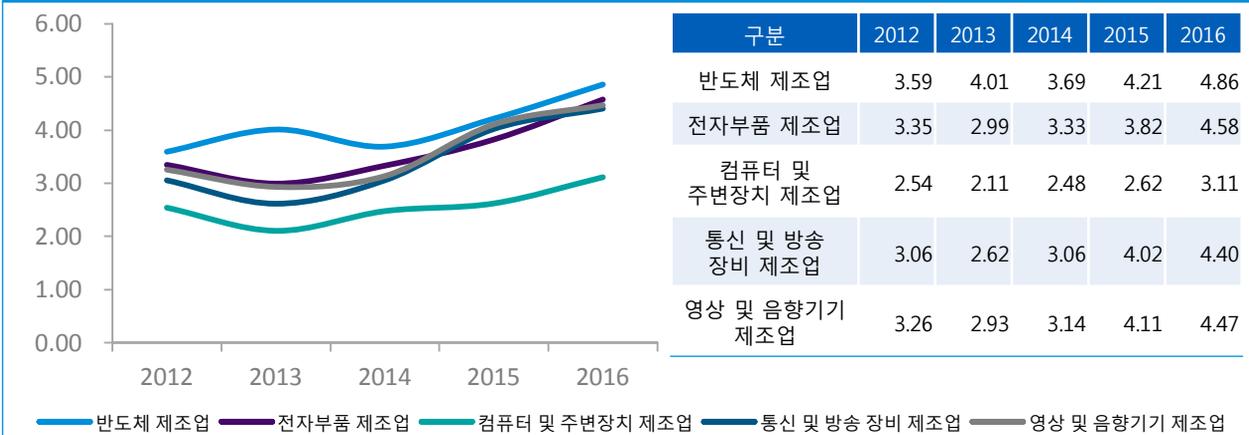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2016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의 경우 모든 전자 산업 세부 업종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의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2013년부터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성장 모멘텀을 잃고 다시 하락한 모습이다. 전자부품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0.16%를 기록했다. 2016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을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업종에서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차감전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 손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전자 산업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이 영업이익수익보다 높은 것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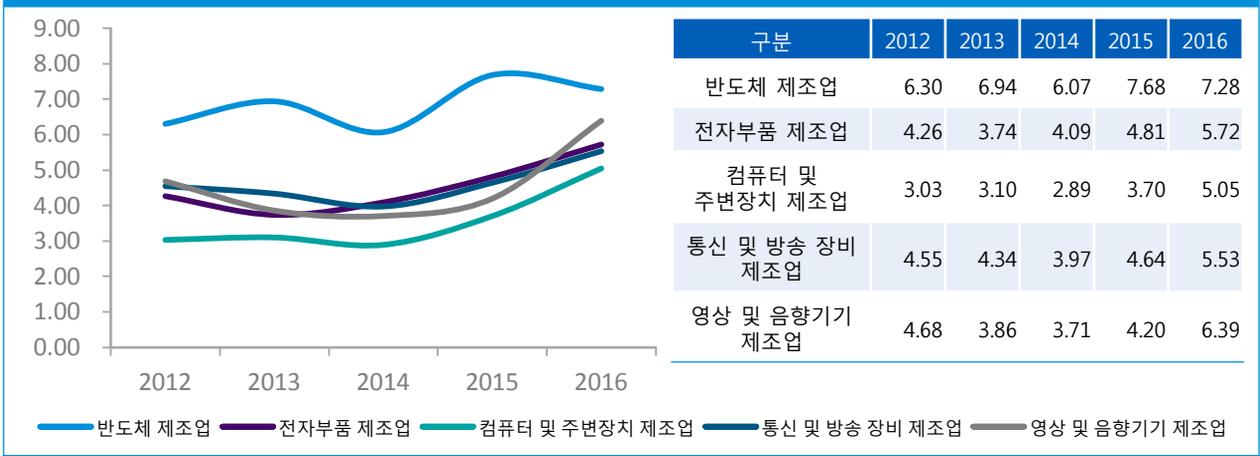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모두 분석 기간 동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나,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이 영업외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업외수익이 영업외비용보다 낮은 정도는 2016년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은 1.13%p, 반도체 제조업은 2.42%p로 나타났다.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타 소분류 산업 대비 가장 낮은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보여 ”

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의 경우, 반도체가 7.28%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 및 음향기기(6.39%), 전자부품(5.72%), 통신 및 방송 장비(5.53%)가 뒤를 이었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는 5년의 분석기간 동안 다른 소분류 산업 대비 가장 낮은 영업외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의 경우 5.05%로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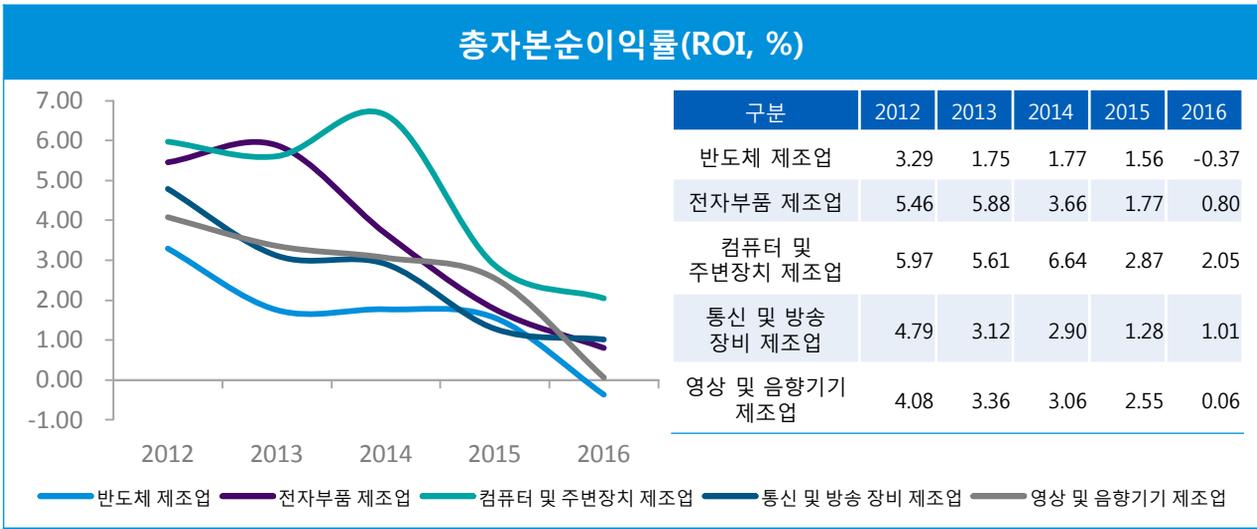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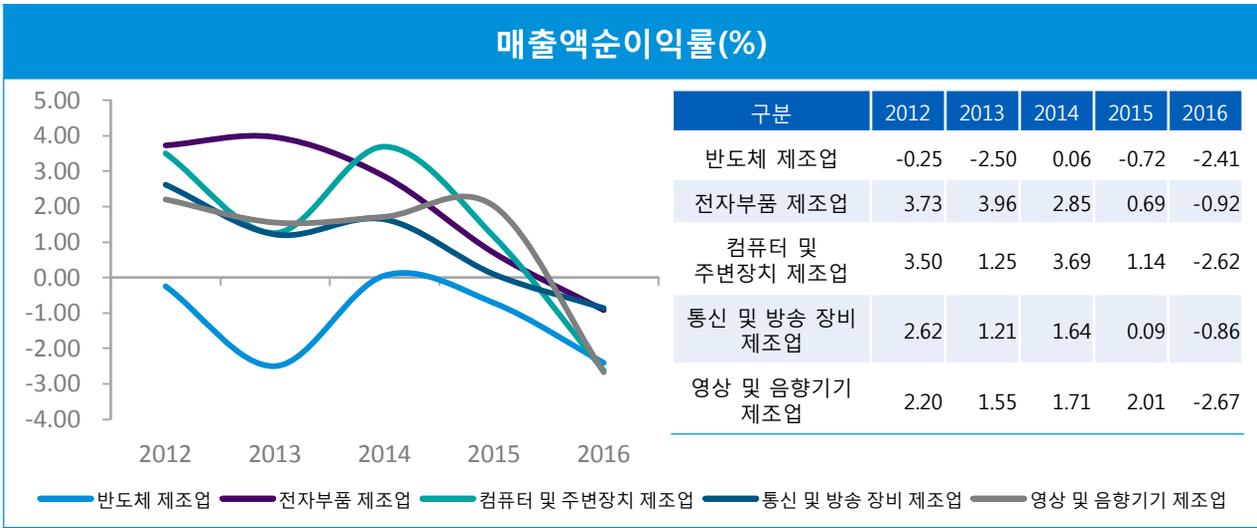


“ 2016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모든 전자 산업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ROI 역시 낮아지고 있음 ”

전자 산업 세부 업종별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기업활동의 최종적인 회계적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은 2015년도부터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 2016년에는 전 업종에서 매출액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영상 및 음향기기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2.67%를 기록하였고 이는 기업활동의 총체적 능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합한 총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I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2014년부터 전 업종에서 총자본순이익률이 하락하여, 보다 안정적인 투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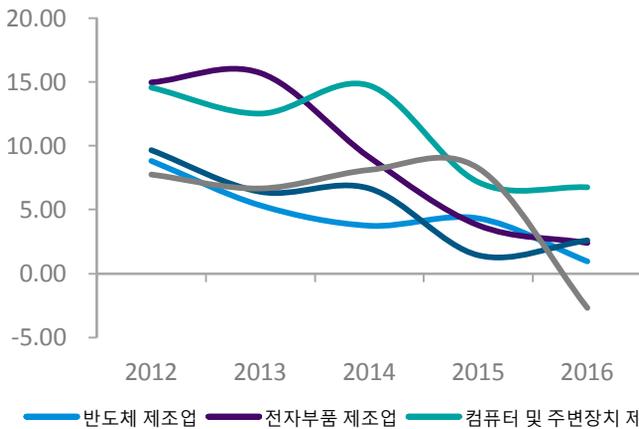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전자 산업 2012~2016년

“ 전자 산업 내 모든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유보액을 늘려 신규 투자여력이 증대되고 있음 ”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E의 경우에도 분석기간 동안 전 전자 산업 세부 업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전자부품의 경우 2012년 14.97%에서 2016년 2.40%로 급락했으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또한 14.57%에서 6.76%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 및 음향기기의 경우, 2016년 자기자본순이익률이 -2.69%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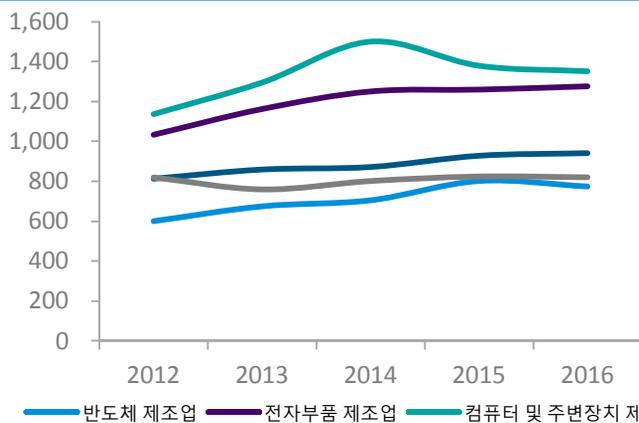
한편 전자 산업 내 전 업종에서 유보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신규투자 여력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전자부품의 경우 타업종 대비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이 1,000%를 상회하며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8.82	5.34	3.75	4.32	0.95
전자부품 제조업	14.97	15.71	9.11	3.78	2.4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4.57	12.53	14.73	7.16	6.76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9.67	6.41	6.66	1.43	2.60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7.76	6.66	8.12	8.25	-2.69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반도체 제조업	600.03	674.38	704.67	801.50	773.80
전자부품 제조업	1033.23	1162.18	1250.12	1259.50	1276.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136.44	1294.71	1499.93	1378.94	1351.36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812.92	858.91	871.57	927.97	941.0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819.13	759.21	801.30	823.93	819.99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V.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 산업의 경영 환경 변화를 회계적·재무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전자 산업의 특징적인 재무비율의 추세를 파악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자 산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데 기여하고자 전자 산업의 재무비율을 분석했다. 물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모든 주요 이슈들과 숨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여러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시점에, 기업의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세부 업종에 분류되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각 사에서 공개하는 재무제표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수익·비용의 재무적 트렌드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자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평균 재무비율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무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전자 산업의 2012~2016년 영업이익률 지속 감소세 ...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급선무 ”

전자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길 ... 수익성 강화가 제 1 과제

전자 산업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주력 산업이자 제조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이 기술 기반 사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 해당 산업이 속한 세부 여러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서 일궈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국 등의 국가가 추격해오는 시점에서 전자 산업의 경영진은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전자 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 전자 산업이 지난 5년간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향후 나아갈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했다.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재무적 과제

- I 영업외비용 줄여야 생존 가능
- II 일반관리비의 비용 효율성 향상
- III 투자 선순환 위한 정교한 R&D 투자 전략 수립

“ 높은 영업외비용은 전자 산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 ”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재무적 과제① 영업외비용 줄여야 생존 가능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항목들은 개별 기업마다 큰 편차가 있고, 세부 계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큰 틀에서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증감,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상대적 규모 등은 전반적인 경영활동 개선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업외비용 내 세부 계정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수익 대비 이자비용의 적정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 산업의 2015년 및 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영업외비용의 상승폭이 영업외수익의 상승폭보다 더욱 커 영업이익률 하락에 따른 전자 산업의 수익성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 산업 전체를 볼 때, 영업외수익보다 영업외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수익률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매출액 대비 7.28%, 2016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매출액 대비 6.39%에 이르렀다. 전자 산업의 특성상 수익 흐름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판로 개척을 위해 판매비를 축소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업외비용을 우선적으로 절감해야 한다.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재무적 과제②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용 효율성 향상

“ 전자 산업의 2012~2016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지속 증가...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 대두 ”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2012년 4.45%에서 2013년 4.22%, 2014년 3.65%, 2015년 2.43%에 이어 2016년 0.93%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자 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총이익률의 하락폭보다 영업이익률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보다 중요해졌다는 부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중은 지속 증가했다.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포함하는 일반관리비가 적정 수준 집행 되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재무적 과제③ 투자 선순환 위한 정교한 R&D 투자 전략

전자 산업은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어온 산업이자 특히 전자 산업 중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산업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자부하는 산업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은 2017년 매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전자 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자 산업을 리딩하는 소수 기업 외 대다수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수익성 악화 추세는 단발성이 아닌 지난 5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상승... 혁신을 위한 긍정적 시그널 ”

국내 전자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크게 원가를 포함한 비용의 증가 혹은 매출액의 감소로 요약된다. 한국 전자 산업 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환경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전자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기업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빠른 영역이다. 특히 전자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자 기업들의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전자 산업은 제조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전략이 가격경쟁력 위주가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전자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수익성 악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 빠르게 대처할 민첩성(agility)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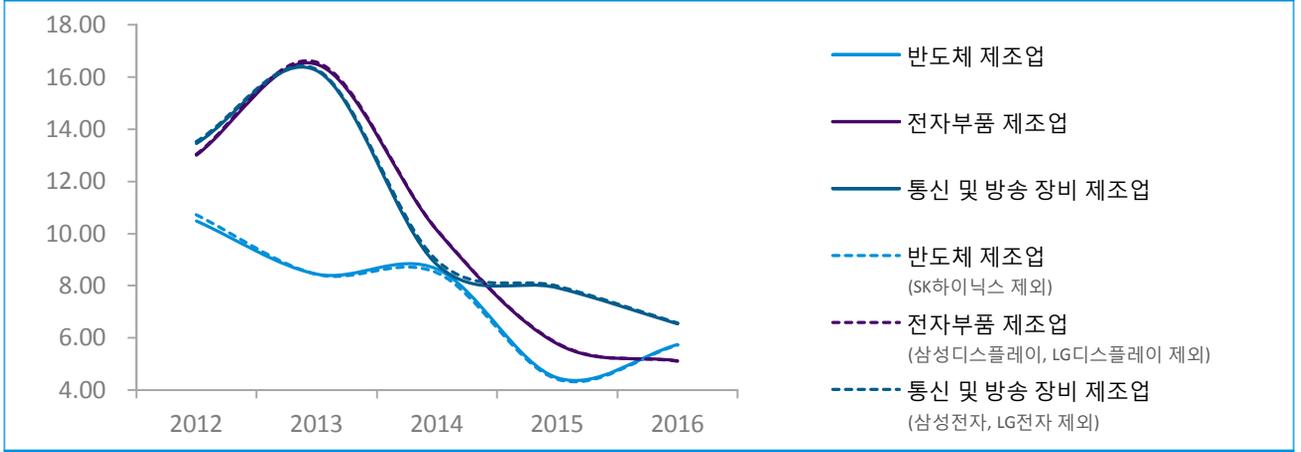
아울러 전자 산업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 분야이다. 기존 산업을 와해시키며 밸류체인(Value Chain)을 재구성하는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그 무엇보다 중차대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이는 신규 투자 여력을 일정 수준 확보해 왔음을 뜻한다. 또한 전자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2년 2.91%, 2013년 3.01%, 2014년 3.09%, 2015년 3.16%, 2016년 3.22% 등 지난 5년간 지속 상승해 왔다.

이는 혁신을 위한 긍정적 시그널이다. 지난 5년간 전자 산업의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선순환적으로 수익성 강화에 연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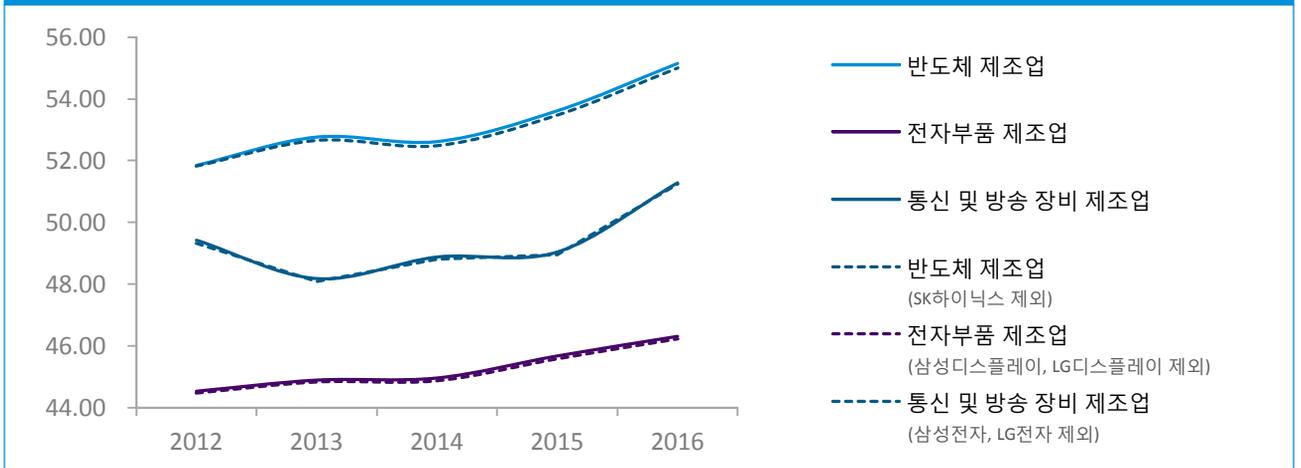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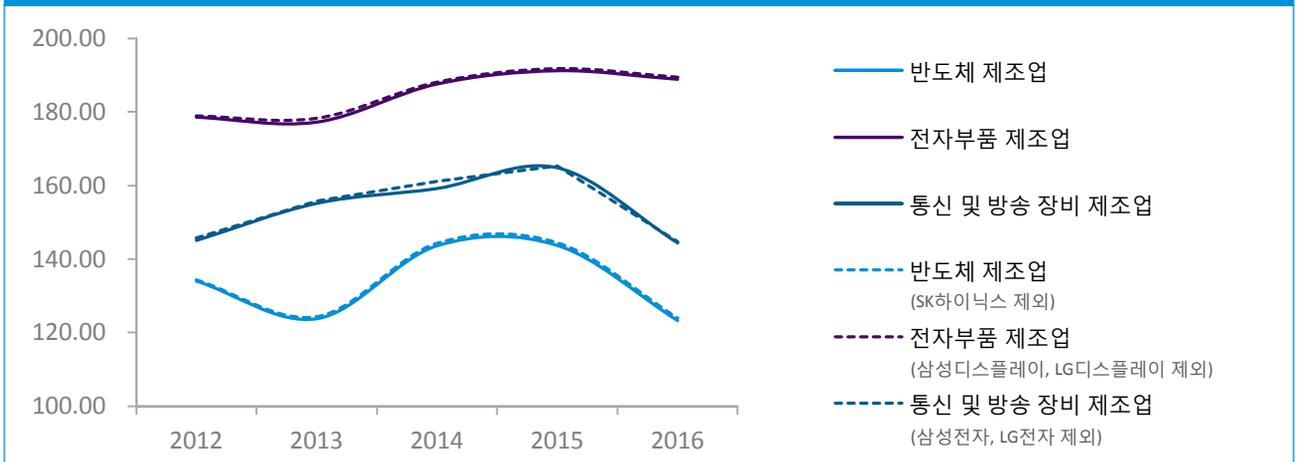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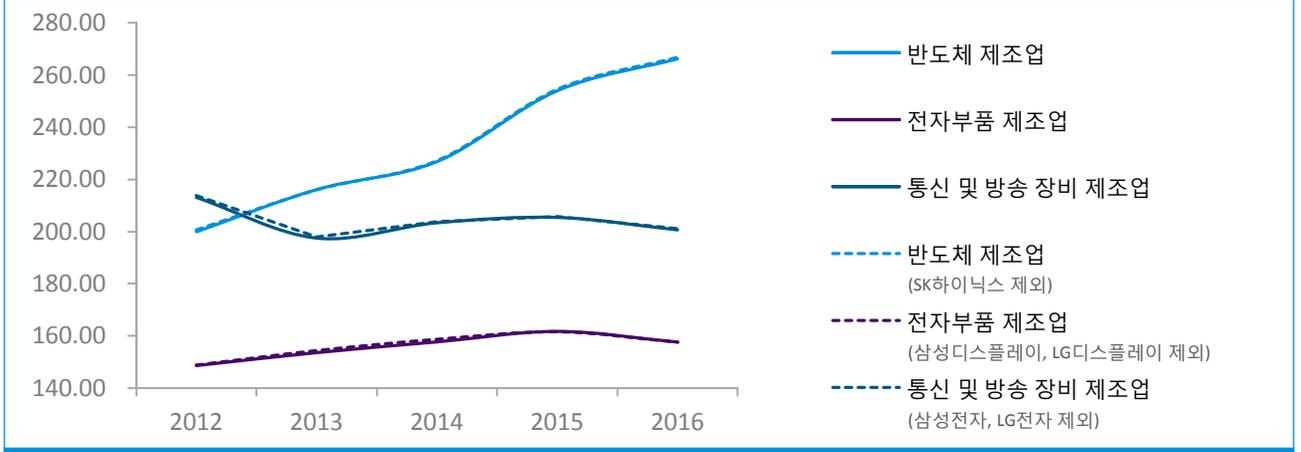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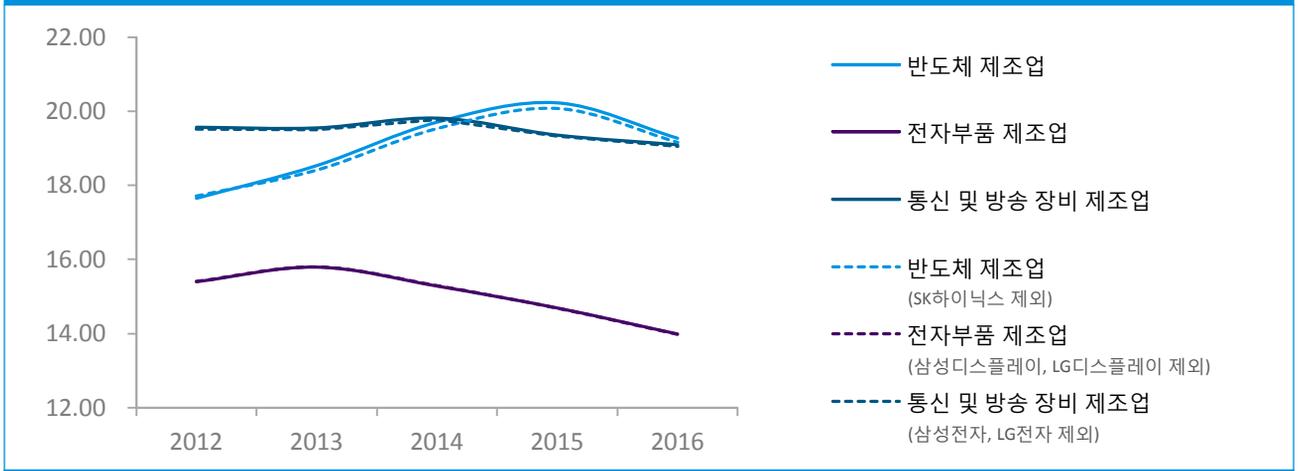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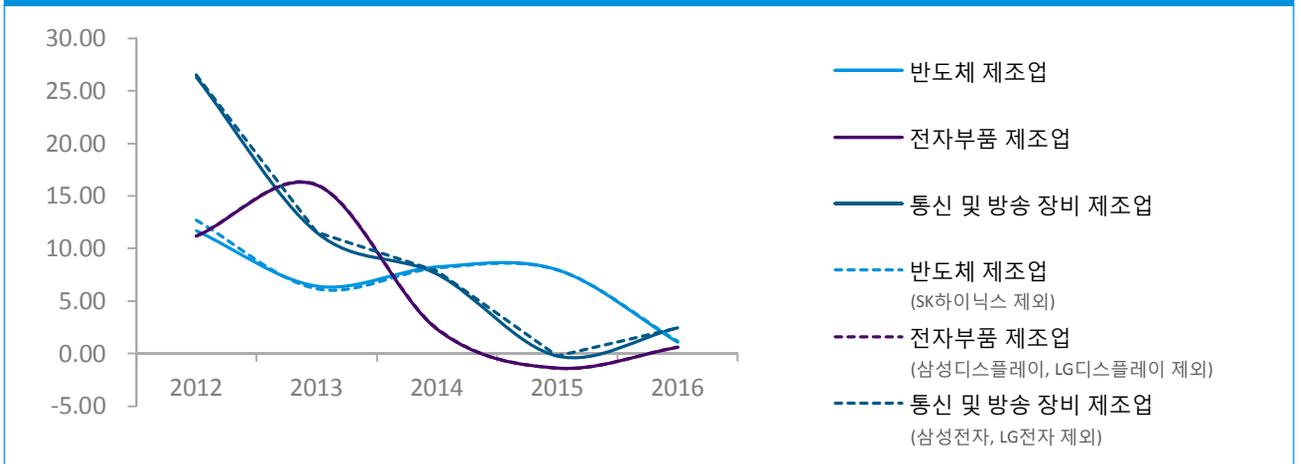
유동비율(%)



매출총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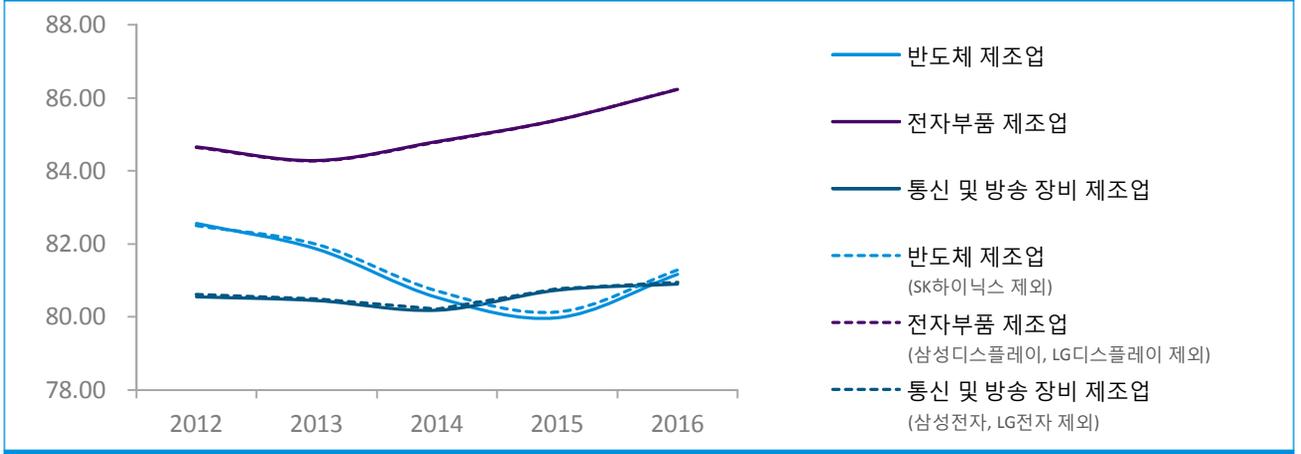
매출액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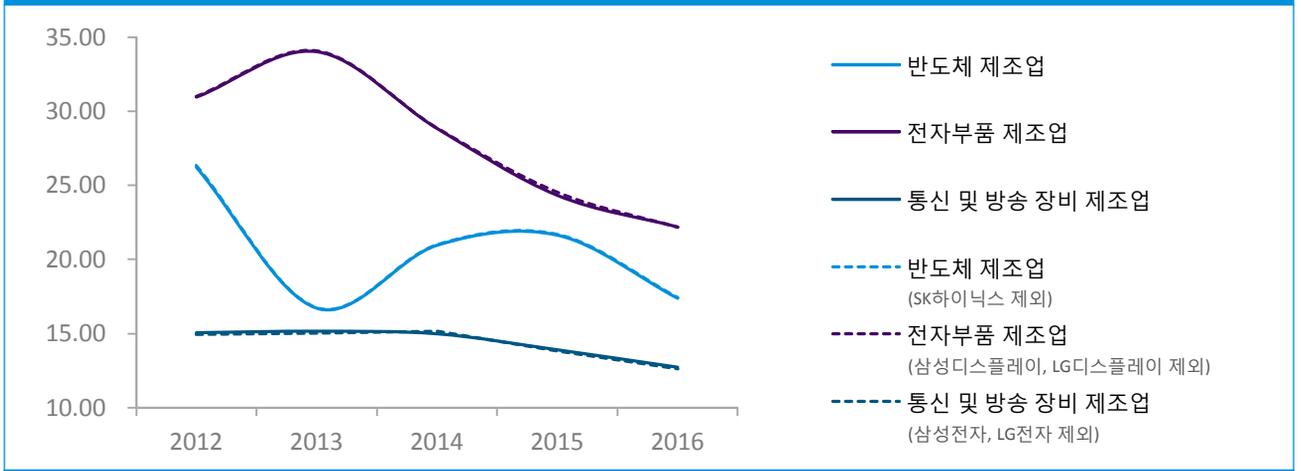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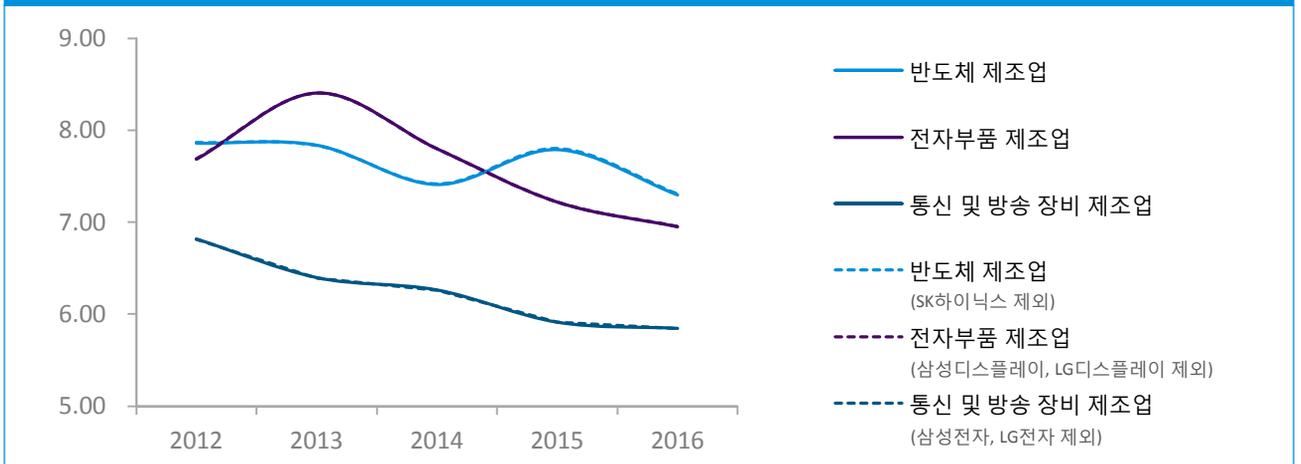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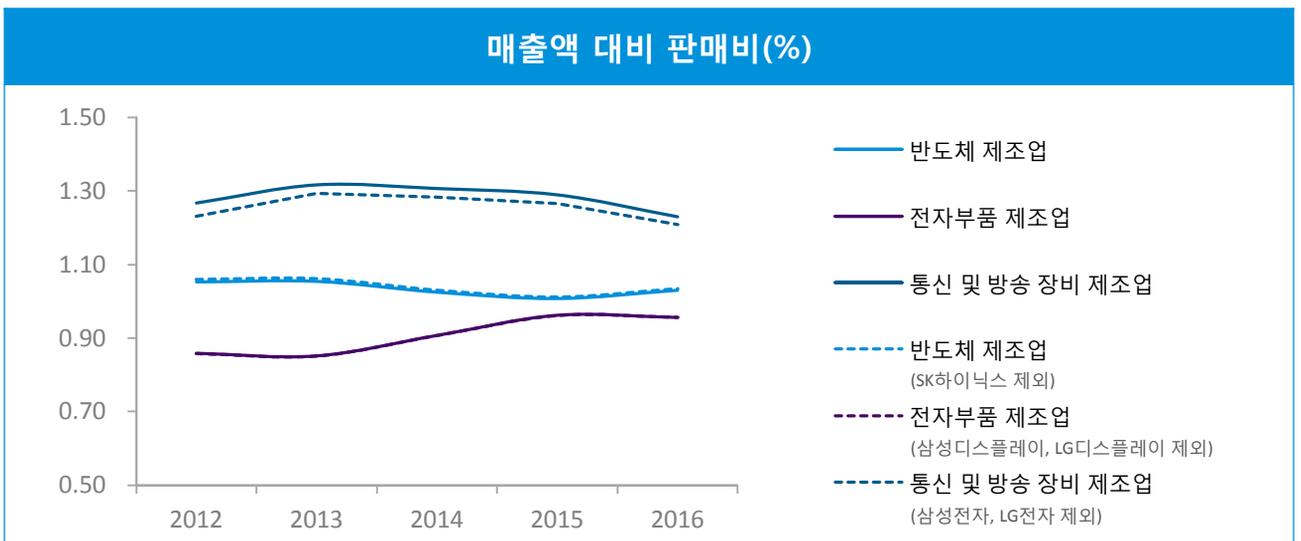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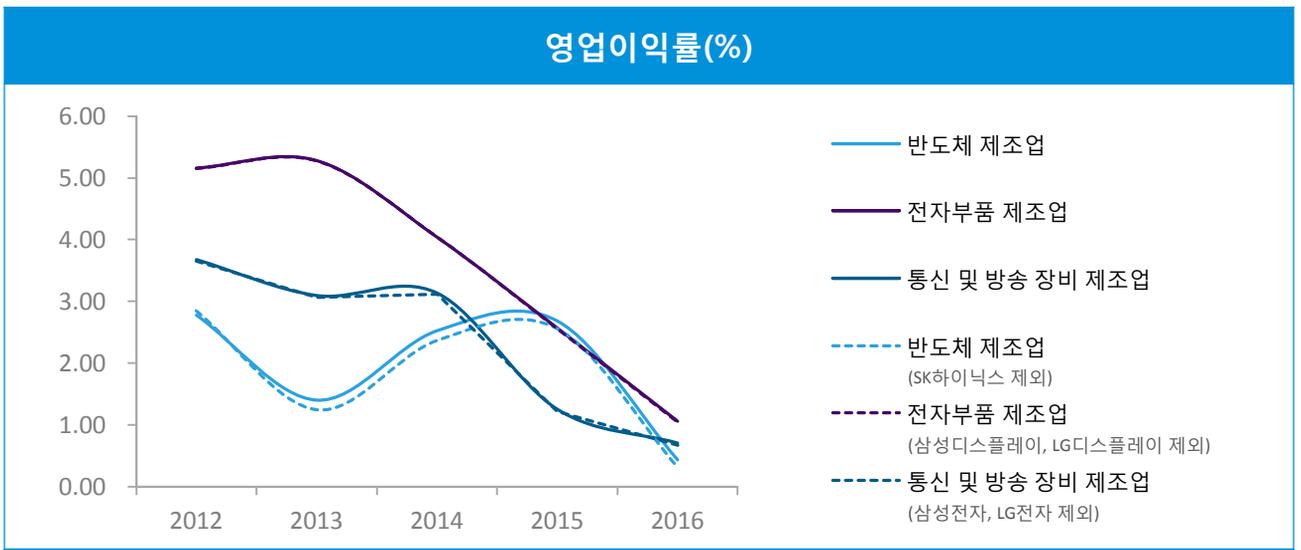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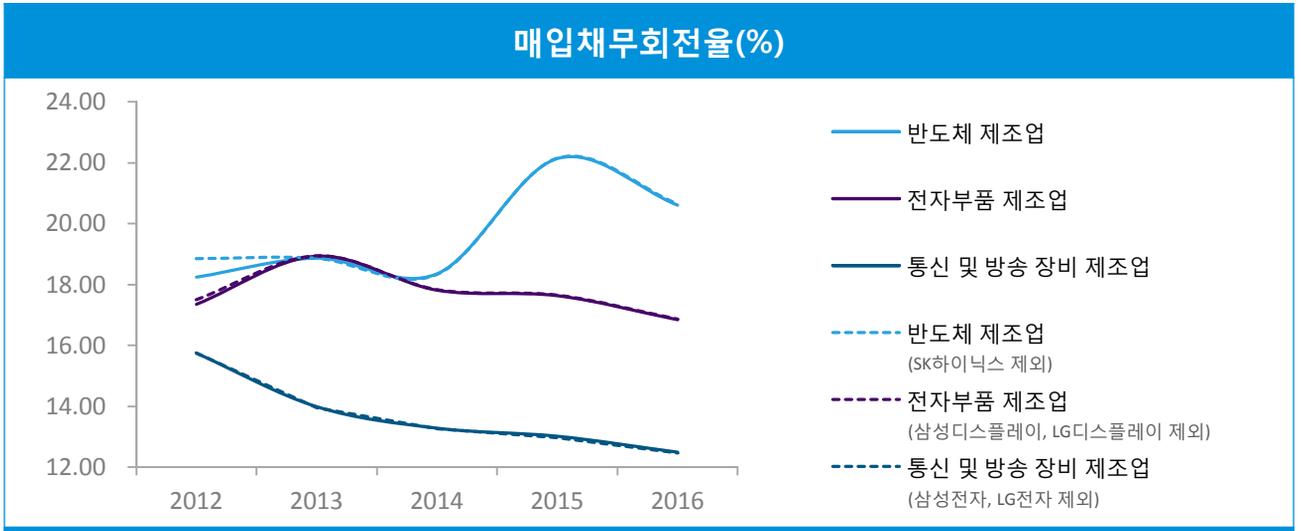


매출채권회전율(%)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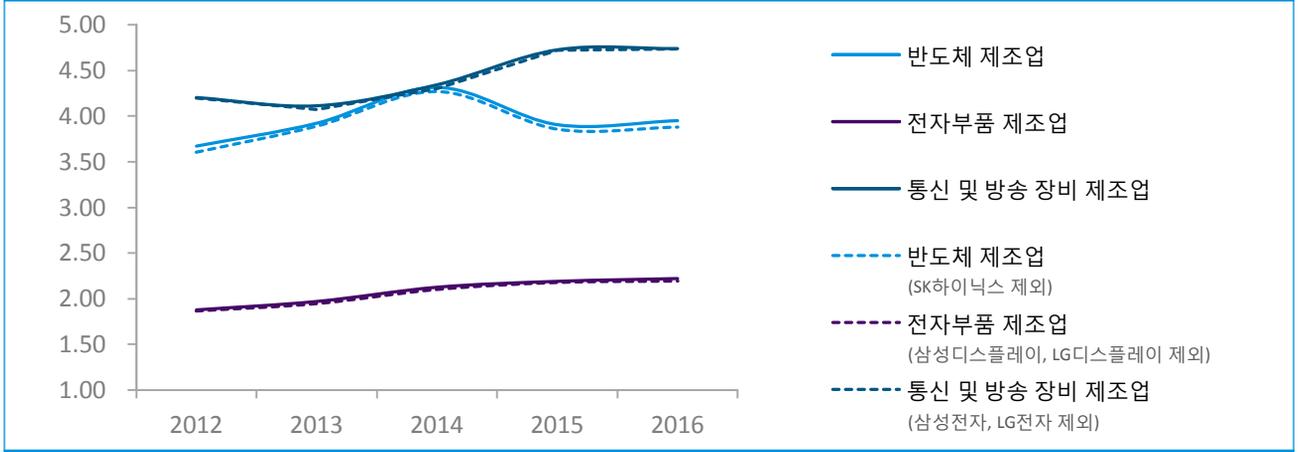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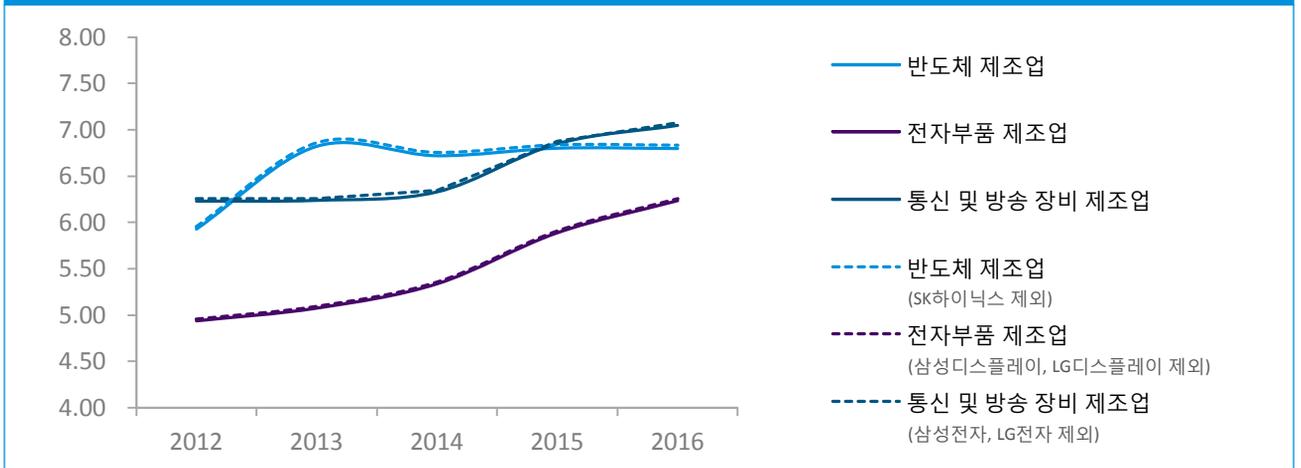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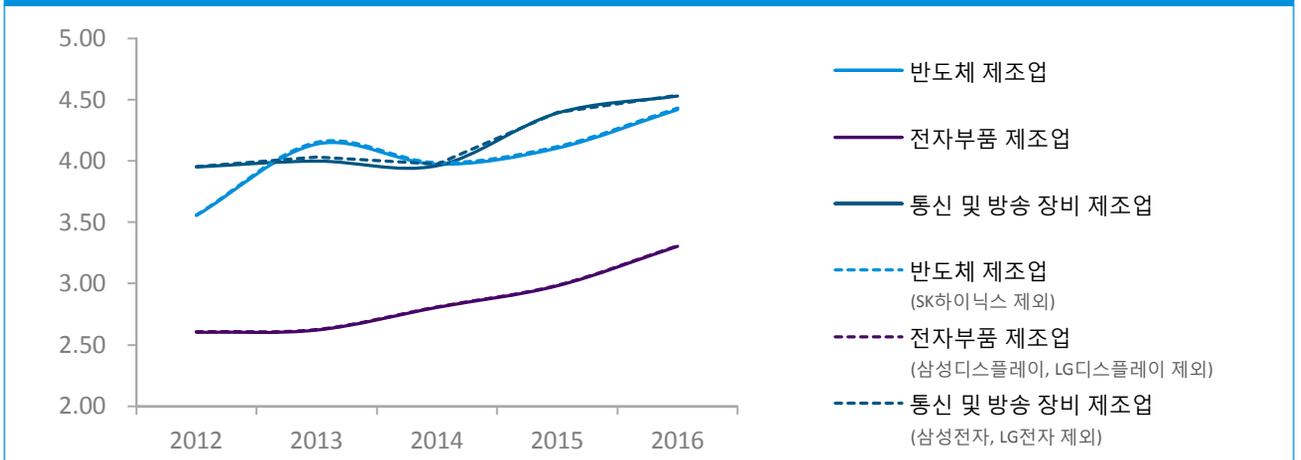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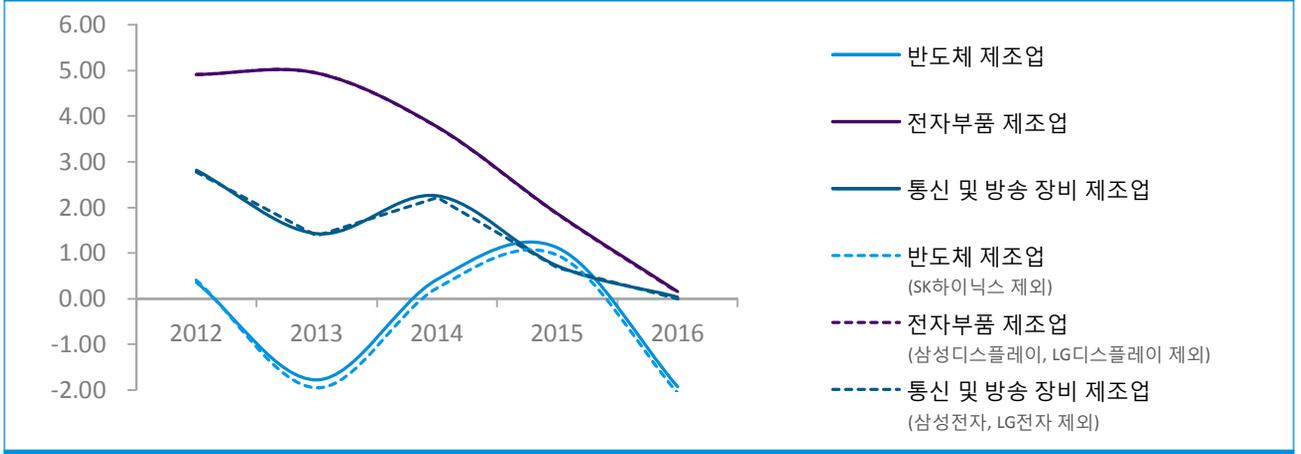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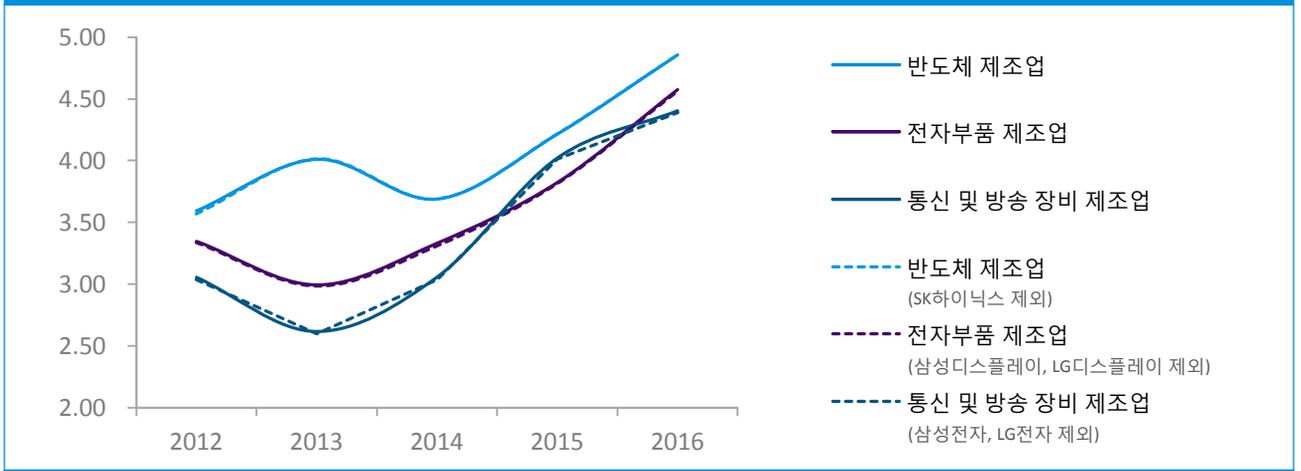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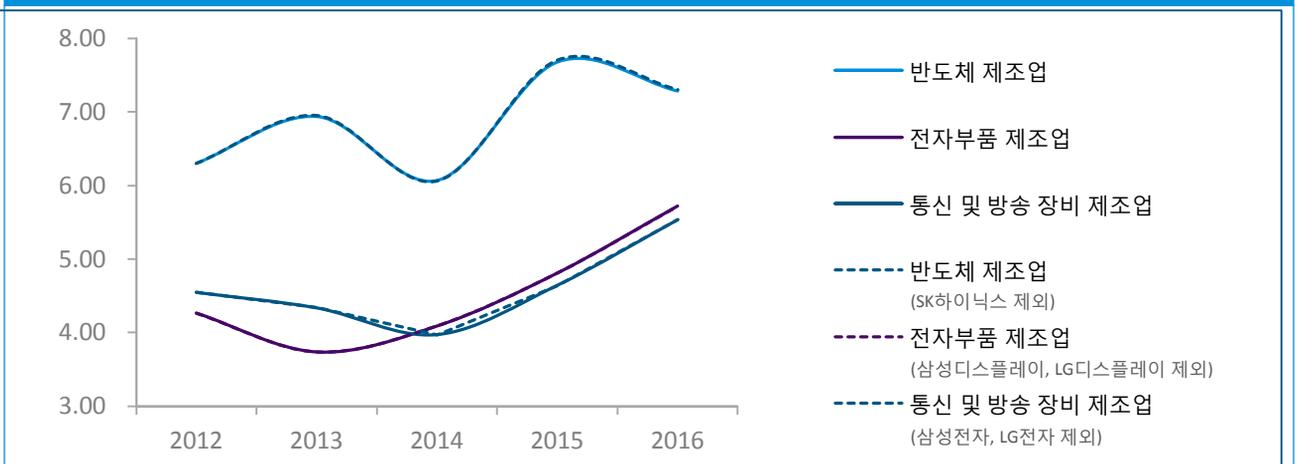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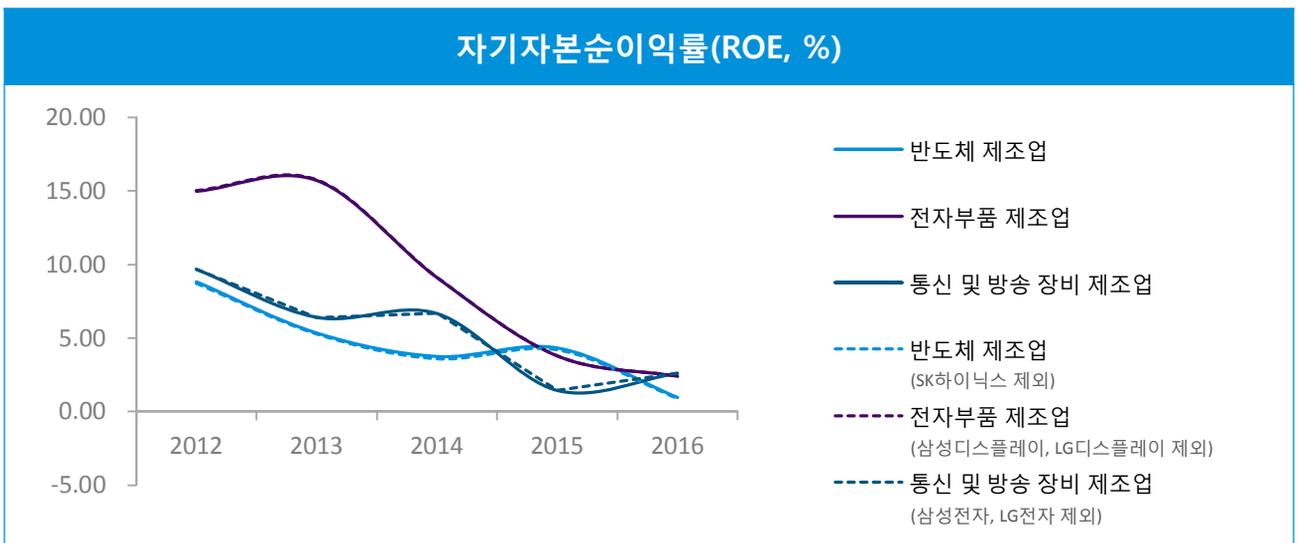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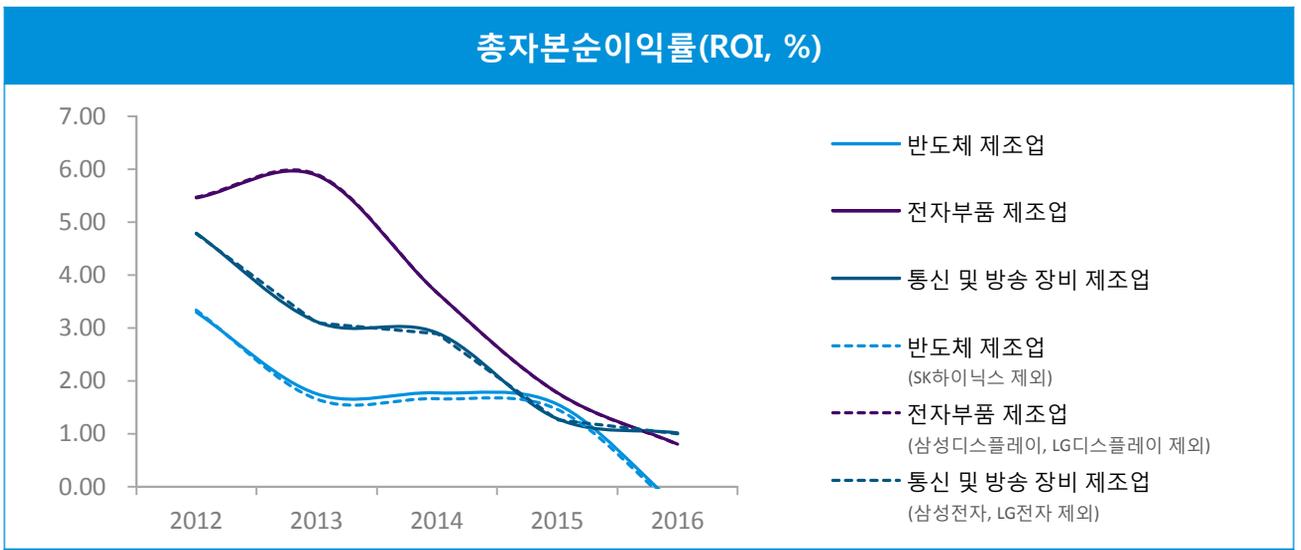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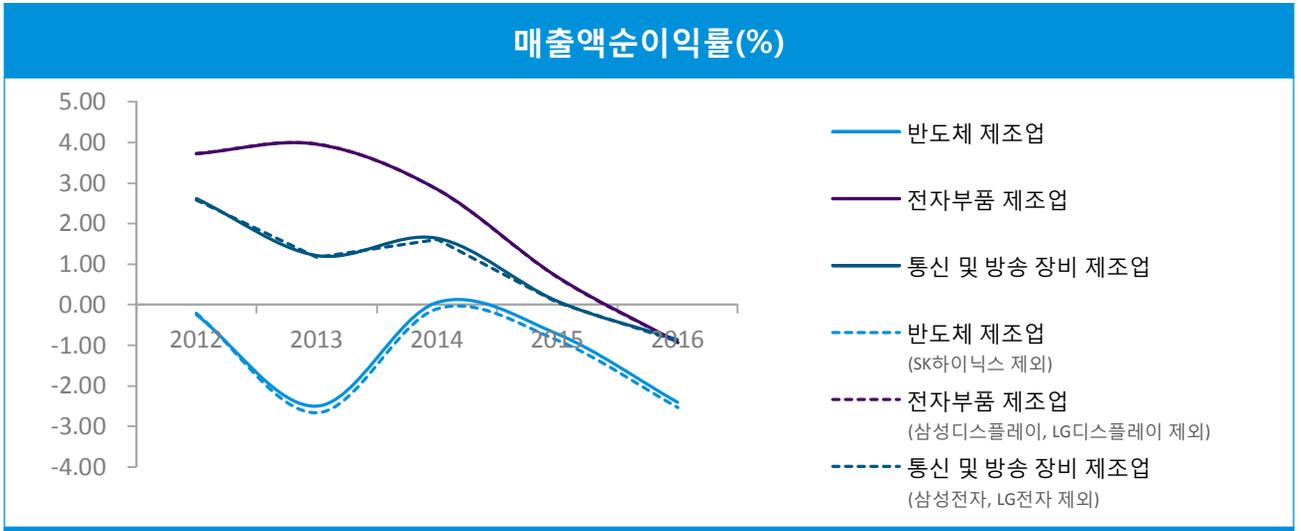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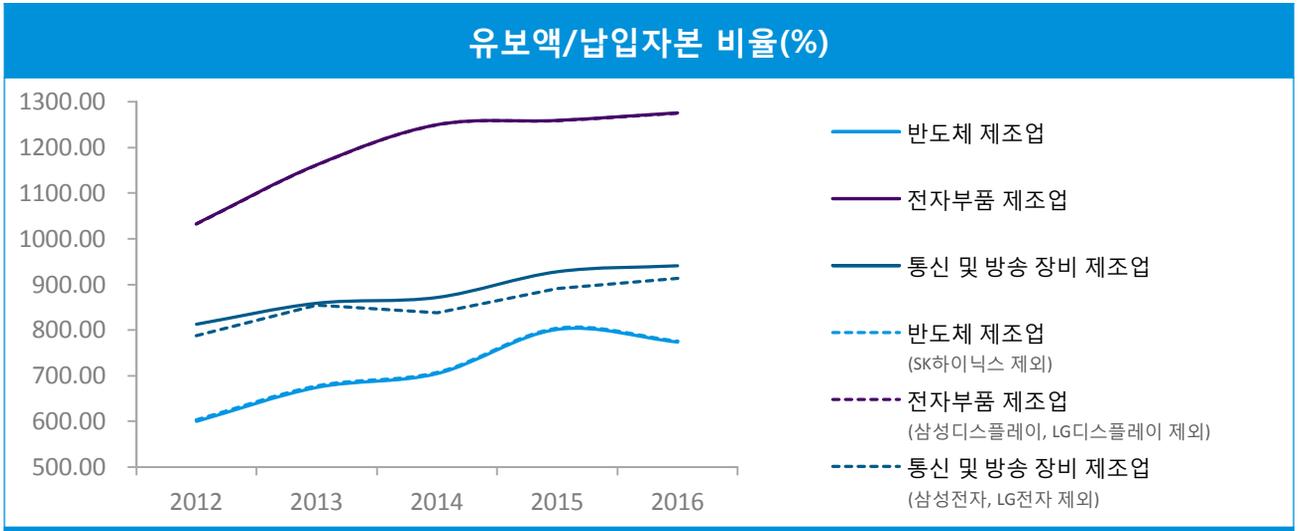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ppendix 1 – 전자 산업 주요 기업* 제외 후 추이 분석

주요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Appendix 2 – 전자 산업 분석 대상 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고원기술	아이닉스	일진반도체	가나안전자정밀
광전자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제이쓰리	가드넥
그린칩스	아이에스시	제주반도체	갤럭시아디바이스
금호에이엠티	아이케이세미콘	지니틱스	거림테크
네스텍코리아	아인스이앤지	지스마트글로벌	거봉
네오디바이스	아진엑스텍	지엠테스트	경동원
네오피델리티	알에프세미	케이앤피	경인전자
네패스	알파홀딩스	케이이씨	경인텍
넥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스텍아이앤씨	경일옵틱스
넥솔론	어보브반도체	코스텍시스	광산
넥스트칩	에스앤에스텍	코아로직	광성전자
노이드테크	에스에스엘엠	코오롱아우토	광원이앤지
다물멀티미디어	에스에프에이반도체	퀵맥스시험기술	광원전자
다솜테크	에스엠이	큐에스아이	광온전자
달마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크로바하이텍	구미이화공업
더게이트테크놀러지스	에스티에이	테라셀	글로벌렉스
동부엘이디	에스피반도체통신	테크온	금빈
동부하이텍	에스피텍	텔레칩스	기원
동운아나텍	에이디반도체	토판포토마스크	기주산업
럭스피아	에이디테크놀로지	티에스테크놀로지	기화정밀
라이트론	에이디텍	티엘아이	나노기술
루멘스	에이알텍	티웨이홀딩스	나노메탈코리아
루미마이크로	에이에스이코리아	티피에스	나노브릭
루셈	에이엘티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나노시스
메가터치	에이엠에스티	페코텍	나노씨엠에스
메이플세미컨덕터	에이오티코리아	포인트엔지니어링	나노인터페이스테크놀로지
무라타기계코리아	에이텍솔루션	퓨렉스	나무가
미래시지엑스	에이티세미콘	프라우텍	나우테크
미코	에코엘이디	프렉스에어시스템테크놀로지스	남경
바른전자	에프씨아이	피델릭스	남경산업
본성	엘디티	피애피네트웍	네덱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엘비세미콘	하나레이저테크	네스캡
산코코리아	엘엠텍	하나마이크론	네오텍
서울바이오시스	엘지실트론	하나머티리얼즈	네프코
서울반도체	엠씨에스로직	한도신소재	넥스디스플레이
성호반도체	엠앤이	한양디지텍	넥스플러스
세목반도체	엠에스웨이	한탑	노나텍
세미센스	엠이씨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노바테크
세미콘라이트	엠이엠씨코리아	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노바테크인더스트리
세미크론	엠텍비전		뉴옵틱스
소스트	엠투엔		뉴인텍
솔브레인멤시스	오디텍		뉴프렉스
스테코	오씨아이스페셜티		다몬
스텝코	올릭스		다스코
시그네틱스	옵토웰		다이아벨
시엠테크놀로지	우리아앤엘		대건테크
신성이앤지	웅진에너지		대광반도체
신화일렉트론	윈팩		대덕GDS
실리콘웍스	윌비에스엔티		대덕전자
실리콘화일	유니벤스		대동전자
싸이노스	유양디앤유		대명전자
싸이닉솔루션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		대산전자
써니전자	이미지스테크놀로지		대성메탈
썬미하우	이엘케이		대야하이테크
쓰리에이로직스	이지캠		대양정기
씨티엘	이츠웰		대양코리아
아나패스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영옵텍
아덴텍코리아	인화이앤지		대영오앤이

Appendix 2 – 전자 산업 분석 대상 기업

전자부품 제조업

대영전자	리지스	삼전	시무인텔
대우석도	마이크로이미지	삼진엘앤디	신덕전자
대은전자	매일정기	삼한일렉트로닉스	신동아전자
대일매스램	매직디스플레이	삼화양행	신성오토텍
대일전자	매직마이크로	삼화전기	신성전자정밀
대주전자재료	매직테크	삼화전자공업	신성프리시전
대호하이텍	맥스켄테크놀로지	삼화콘덴서공업	신신사
대화금속	맥테크코리아	상보	신오전자
덕산네오룩스	멀티일렉텍	상신전자	신한전기
덕스	멀티텍	상채스틸	신협전자
덕우전자	메가테크	상진미크론	신흥정기
도타이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	새로닉스	신흥정밀
동국성신	메인일렉콤	새한	신흥티앤엘
동명전자	메티스	새한마이크로텍	심텍
동부전자소재	멜파스	샘씨엔에스	싸니코전자
동산	명보산업개발	서림	쌍용스틸
동산전자	모다아울렛	서일전자	써키프플렉스
동서전자	모다노칩	서호	쓰리나인
동성테크	모든테크	선린전자	씨아이씨티
동오정밀	모립스	성남전기공업	씨에스티
동우테크	모스탑	성문전자	씨엔플러스
동원하이텍	모아텍	성신이앤씨	씨엠파트너
동은씨엔티	미경테크	성신테크	씨유테크
동인하이텍	미래코리아	성우	아모그린텍
동일기연	미래테크원	성우테크론	아모센스
동진	미르시스템	성지산업	아모텍
동현테크노	미성포리테크	성지전자	아바텍
두리전자	미쓰이금속한국	성진정밀	아사히카세이머티리얼즈
두모전자	바오스	성평	아워서킷
두성산업	바이오로그디바이스	성호전자	아이델
두성산업	바이오스마트	세고라디칼	아이쓰리시스템
두성테크	박전자	세기정밀	아이씨케이
드림텍	배운전자	세나테크코리아	아이에스테크놀로지
드림홀딩스	백송전자	세림전자	아이엔텍
디.엔.피코퍼레이션	베이스	세성	아이엠
디스플레이테크	보국전자	세영	아이엠텍
디씨이	부국정밀	세우인코퍼레이션	아이컴포넌트
디씨피	부전전자	세우테크노산업	아이티엠반도체
디아이씨	부천공업	세원하이텍	아즈텍
디아인텍	브이디에스	세윤	아태코
디에이피	블루전자	세일전자	알비케이이앤디
디엔텍	비나텍	세중	알엔투테크놀로지
디엘티	비에이치	세진공업	알티
디엠케이	비엔코리아	세진티에스	알티엑스테크놀로지
디엠티	비케이전자	센서텍	알파비전
디지티	빅트리	센코	엑트
디케이	빛샘전자	센트로닉스	양우
디케이썬서	삼경산업	소닉스	에센텍
디케이알텍	삼광오토모티브	솔루에타	에스디에스산업
디케이티	삼보동선	솔루엠	에스디플렉스
디페트엠	삼성디스플레이	솔브레인에스엘디	에스아이텍
디피씨	삼성전기	스마트디앤씨	에스아이티
레온	삼에스코리아	스마트전자	에스아이플렉스
레이저플렉스	삼영에스앤씨	스마트코리아피씨비	에스알아이텍
레이젠	삼영전자공업	스위치코리아	에스알지텍
로움코리아	삼원산업사	스텝시스템	에스앤에스
리노공업	삼원에프에이	시노펙스	에스에스뉴테크
리모트솔루션	삼익전자산업	시노플렉스	에스엔제이

Appendix 2 – 전자 산업 분석 대상 기업

전자부품 제조업

에스엔케이폴리텍	에스텔레콤	이랜시스	지트리비엔티
에스엠디에스피	오리온	이레전자	진성전자
에스엠지	오성디스플레이	이성산업	진영이노텍
에스엠텍	오코스모스	이솔화학	창성시트
에스엠트로닉스	오킨스전자	이수엑사보드	캠시스
에스에이이	오토닉스	이수페타시스	컴테크씨지
에스제이티	오토시스	이아이씨티코리아	케이.에이.티.
에스케이씨솔믹스	온셀텍	이아이에스	케이.제이화학
에스티큐브	옵토팩	이엔에이치	케이알이엠에스
에스피텍	옵티맥	이엘테크	케이에스디
에이스전자산업	와이솔	이엠넥스	케이에이치바텍
에이스힌지텍	와이제이엠게임즈	이오에스	케이에이치열텍
에이에스에이텍	와이지텍	이오에스아이	케이에이치전자
에이에프오	와이팜	이코니	케이원전자
에이엔웨이브	와이피티	이테크	케이이티솔루션
에이엔피	우리비전	이피텍	케이제이코리아
에이엘에스	우리선테크	인당	케이티지
에이원	우리엔텍	인지디스플레이	코나씨
에이치에스	우수전자산업	인터플렉스	코나엠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우신엠에스	인페쏘	코텍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우익반도체	일산	코리아신에
에이치엠알텍	우전	일산전자	코리아씨키트
에이치엠티	우진더블유티피	일신전자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에이케이반도체	우진엠엔디	일신터치	코리아하이테크
에이티씨	원우정밀	일신테크	코스모텍
에이티엔에스코리아	원일아이엠	일진디스플레이	코아전기
에이팩	원진산업	일진머티리얼즈	코아테크시스템
에이팩스테크놀로지	원천산업	자은전자	코엠테크
에이플러스	월덱스	자화전자	코원솔루텍
에이플렉스	월드비전	재인씨키트	코일마스터
에임하이글로벌	월성전자	재현	코칩
에프에스티	위넥스	전오	큐플러스
에프엠에스	위니아글로벌테크	전유산업	크루셀텍
에픽라이트	위닉스	정민전자	키스트론
엑센도	유노테크	정신전자	김스코퍼레이션
엔투에이	유니엘플렉스	정진넥스텍	타이거일렉
엘에스통신	유니온	제니스월드	타코마테크놀로지
엘지디스플레이	유니코글로벌	제닉스	탑런테크
엘지이노텍	유닉사운드	제성아이엔티	태성
엠아이엔전자	유비셀	제이앤디씨키트	태양쓰리시
엠알시	유성전자	제이에이씨	테라닉스
엠제이텍	유아이디	제이엘케이인스펙션	테코스
엠제이티	유원	제이엘텍코퍼레이션	테크노에스
엠케이전자	유테크	제이엠티	테크노전자
엠텍	유토로닉스	제이케이테크	테크노힐
엠투엘	유티아이	제이텍	토다이수
엠플러스	유한하이테크	제일공업	토소에스엠디코리아
연경전자	유현전자	제임스텍	토파즈
연이정보통신	육일씨엔에쓰	젬백스테크놀로지	트래닛
연호엠에스	은성산업	조와텍	트레이스
연호전자	의신정밀	조인셋	트루윈
영림테크	이그잭스	지디	티노스팩토리
영신공업	이노터치테크놀로지	지멤스	티디케이한국
영일프레스전	이노페이스	지성이노베이션	티씨씨
영진아스텍	이노플렉스	지알캠	티아이에스코리아
영진전기	이녹스	지엠이노텍	티에스비
영풍전자	이녹스첨단소재	지이티플러스	티에스피
영풍전자	이라이콤	지트론	티엔씨

Appendix 2 – 전자 산업 분석 대상 기업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티엘비	해윤이노베이션	대우루컴즈	가온미디어
티케이씨	해인전자	대정테크원	감마누
파버나인	행성	드림인텍	건아정보기술
파인디앤씨	행성디지털	디에스글로벌	건호전자
파인일렉컴	행성사	디젠	경신금속
파인텍	현대테크	디지아이	계명티아이
파코스	현대플렉스	딜리	굿텔
파트론	현우산업	라모스테크놀로지	극동통신
펜탑	현진전자	레드스톤시스템	기산텔레콤
포스텍전자	호성금속	미루시스템즈	네오랩컨버전스
포콘스	화이날테크	보이저아이앤씨	네온포토닉스
풍원정밀	화이트스톤	블루버드	네트워크케이블
풍전	화인씨키트	비아이오에스	넥스트바이오홀딩스
프레스코	화인알텍	비앤에스미디어	넥스피안
프로맥	화인엠티	빅솔론	다보링크
프로웰	환덕전자	삼보컴퓨터	다산네트웍솔루션즈
프로트로닉스	회명파인테크	삼일씨티에스	다산네트웍스
피에스엠씨	휘닉스소재	서울스탠다드	다산일렉트론
피케이엘	휘닉스테크	아이디피	다성
피케이텍시스템	휴넷플러스	아이리스아이디	대동통신
픽셀플러스	휴렉스	아하정보통신	대영케이티엑스
필로시스	휴먼전자	앤비전	대일테크
필룩스	희성금속	엠피코	독트라
핌코	희성소재	에스프린팅솔루션	동양산업
하나씨키트	희성전자	에이제이션시물	동양텔레콤
하나전자	히로세코리아	에이텍	동영미디어
하나티이씨		에임투지	동한피앤에스
하남전자		엠투아이코퍼레이션	두리원텍
하니웰퍼포먼스머터리얼스엔테크놀로지스		옛지아이앤디	디에스피원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올제텍	디엠티
하이브론		옵티스	디지파츠
하이엘		우심시스템	라이콤
하이콘		이에스산전	라이트론
한국경남태양유전		이트론	라인테크닉스
한국광성전자		이피네트시스템즈	렉스젠
한국비아테크		잘만테크	로스원
한국산연		제이디	루맥스어어로스페이스
한국성전		제이스테판	루키스
한국신광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주연테크	리텍
한국알박머터리얼즈		지티티	링크텍
한국알텍		진코퍼레이션	맥스포
한국에스엠티		컨택터스	맥스씨아이씨
한국제이씨씨		케이티엔에프	머큐리
한국제이에스티		코츠테크놀로지	메타네트웍스
한국컴퓨터		코텍	모다
한국터치스크린		태흥아이에스	모베이스
한국플렉스		토비스	모임스톤
한국호야전자		티에스라인시스템	바른테크놀로지
한림기업		파워렉스	바이콤
한림에스제이테크		포인트모바일	백금티앤에이
한빛티앤아이		프리닉스	보성정보통신
한샘디지털		하나시스	브로던
한솔테크닉스		한미마이크로닉스	브리지파워
한영정공		한성컴퓨터	비덴트
한일산업		현대아이비티	비전블루
한주반도체			비클시스템
합동전자			삼광원테크
해성디에스			삼성전자

Appendix 2 – 전자 산업 분석 대상 기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삼영이엔씨	에스케이텔레시스	이너트론	티노스
삼우엠스	에스코넥	이노와이어리스	티앤아이이
삼지전자	에스티엠아이	이노인스트루먼트	파워텍일렉트로닉스
삼진	에어텍시스템	이디에스	파이버프로
삼진테크	에어포인트	이랜텍	파이오링크
새한전자	에이디에스테크	이스트포토닉스	파인디지털
서진시스템	에이스넷	이씨스	파인테크닉스
서화정보통신	에이스안테나	이엠따블유	파인텔레콤
선택인터내셔널	에이스테크놀로지	인콘	팬택
성우전자	에이앤티에스	인탑스	포소드
성화	에이엠텔레콤	인터소프트	포앤티
세광하이테크	에이제이월드	인텍디지털	퓨처시스템
세나테크놀로지	에이치케이씨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피플웍스
세원텔레텍	에이치케이티	인포마크	피피아이
셀트론	에이큐	일야	하이게인안테나
송암시스템	에이텍티앤	장원테크	하이트론시스템즈
슈프리마	에이텔시스템	정명	한국안테나
슈프리마아이디	에이티아이디	제노코	한단정보통신
스프링웨이브	에이티앤씨	제이케이텍	한드림넷
시스템이트	에이티앤에스	제일테크	한성전자
시큐베스트	에이프로젠헬스케어엔게임즈	제트에이치티	한세전자
신동디지털	에이피워성	주니코리아	현대제이콤
신보	에치디프로	중일테크	현대통신
쌍신전자통신	에치에프알	천영기공	홈캐스트
썬텔	에프알텍	카티스	희명정보통신
쓰닉스	에프앤리퍼블릭	캐스트윈	휘라포토닉스
썬리드	엔쓰리엔	캘리브텍	휴니드테크놀로지스
썬리드윈텍	엔아이투스	케이알에프	LG전자
씨넷	엔알케이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씨스존	엔컴퓨팅	케이앤제이전자	
씨앤에스링크	엔티모아	케이엠더블유	
씨앤유글로벌	엘림전자산업	케이엠텍	
씨에스	엠쓰리모바일	케이제이알텍	
씨엘인터내셔널	엠피디	케이티앤씨	
씨큐로	오라콤	캠옵틱스	
씨티네트웍스	오성전자	코넷시스	
씨-프로	오이솔루션	코마테크	
아리온테크놀로지	오피트	코맥스	
아비코전자	옵토위즈	코메스타	
아이두잇	옵티시스	코셋	
아이디스	와이에스테크	코위버	
아이머큐리	우리넷	코콤	
아이센트	우리로	콘텔라	
아이에이	우리별	쿠도커뮤니케이션	
아이트로닉스	원우이엔지	키프코전자항공	
아프로텍	웨이브일렉트로닉스	태양씨앤엘	
알로이스	웨이브텍	테릭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위너콤	텍스	
알에프윈도우	위니테크놀로지	텔라운	
알에프텍	위월드	텔레트론	
알티전자	원텍시스템	텔레필드	
암니스	유니모테크놀로지	텔리언	
애드팩테크놀로지	유니온커뮤니티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에더트로닉스코리아	유비쿼스	텔콘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유아이엘	토펬스	
에스맥	유진메카닉스	토피드	
에스제이테크	유진하이텍	토피드인터내셔널	
에스지정보산업	유텔	투윈스컴	

Appendix 2 – 전자 산업 분석 대상 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금영그룹	트루엔
기린전자	티엠테크
기민전자	티제이미디어
대성엘텍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대우디스플레이	한국소니전자
데스코	한국토프톤
디라직	한화하이테크
디브이에스코리아	홀로그래미카
디앤티	휴맥스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휴맥스오토모티브
디지털존	
마르시스	
미동앤씨네마	
범진시엔엘	
범진전자	
범천정밀	
베이직테크	
블루콤	
비에스이	
비투지코리아	
삼본정밀전자	
성주음향	
송하전자	
스피드테크놀로지	
씨앤씨오토모티브	
아남전자	
아이리버	
아이모스시스템	
아이티엑스엠투엠	
아트뷰	
에스제이앤에스	
에스텍	
엔터미디어	
엠소닉	
엠씨넥스	
열림기술	
오디오링크	
오성미디컴	
웰랑	
이엠텍	
인켈	
인터엠	
제이디솔루션	
제이앤에치텍	
지넷시스템	
지에스티코리아	
진영지앤티	
천호테크	
충무정밀	
카모스	
케빅	
케이큐글로벌	
코스텍	
코스텔	
크레신	
태우	
투에이치	
튜너웍스코리아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전문팀

양승열
부대표
02-2112-0330
seungyeouyang@kr.kpmg.com

염승훈
전무이사
02-2112-0533
syecom@kr.kpmg.com

전철희
전무이사
02-2112-0355
cjun@kr.kpmg.com

박성배
전무이사
02-2112-0304
sungbaepark@kr.kpmg.com

한상현
상무이사
02-2112-0387
sanghyunhan@kr.kpmg.com

정현
상무이사
02-2112-0334
heonjung@kr.kpmg.com

노원
상무이사
02-2112-0313
wroh@kr.kpmg.com

민성진
상무이사
02-2112-0852
smin@kr.kpmg.com

오헌창
상무이사
02-2112-7478
heonchangoh@kr.kpmg.com

신문철
상무이사
02-2112-0356
moonchulshin@kr.kpmg.com

강인혜
상무이사
02-2112-0363
ikang@kr.kpmg.com

최이현
상무이사
02-2112-0505
yeehyunchoi@kr.kpmg.com

김익찬
상무이사
02-2112-0468
ikchankim@kr.kpmg.com

안창범
상무이사
02-2112-0312
cahn@kr.kpmg.com

kr.kpmg.com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